Weekly 공감
No.332
korea.kr/gonggam
2015.11.30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Our People, Our Community, Our Vision
MALAYSIA 2015

ASEAN Plus Three

Kuala Lumpur, Malaysia 21 November



박근혜 대통령 G20, APEC, ASEAN 외교 성과
기획특집 '그늘에 따스한 햇살' 국민 생활 서비스 정책 ❶
제14대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야생화와 창조경제/꽃도 6차산업이다

스캔하면 공감 블로그를 만납니다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대한민국 대표복지포털 – www.bokjiro.go.kr

복지신청은 '복지로'
부정신고도 '복지로'



나와 이웃, 국민을 위해 복지로를 클릭해 주세요~!



뽀롱뽀롱 뽀로로

© ICONIX / OCON / EBS / SKbroadband

클릭 1 **나를 위한** 복지혜택 찾기

내가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클릭 2 **어려운 이웃**을 위해 복지 신청

주변에 어려운 분을 위해 누구나 도움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 3 **부정수급**하는 사람 신고하기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받았거나 받고있는 곳을 신고해주세요.

함께 만드는 복지 복지로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SSiS 사회보장정보원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ERVICE

건강 지키고 부담은 덜고



현재룡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장

정부의 다양한 국민 생활 서비스 정책이 국민 삶을 크게 개선시키고 있다. 그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의료비 부담을 줄여온 것이다. 특히 1977년 처음 도입된 이후 불과 12년 만에 전 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한 우리 건강보험제도는 국민 누구나 쉽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 문턱을 낮추었다. 이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수준도 크게 향상시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부러워할 정도로 우수한 제도로 발전해왔다.

하지만 많은 재정 투입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최근 5년간 62% 내외에서 머물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박근혜정부는 2013년부터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보장성 강화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 중 초음파 등 125개 항목을 지난해 급여로 전환했다. 올해는 첨단 필수검사 등 203개 항목에 대해 급여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2조4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러한 계획들이 2016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OECD 회원국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3대 비급여 항목(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중 선택진료비는 2017년에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다. 상급병실료는 지난해 4인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했고, 올해는 대형병원의 일반 병상 확보 비율을 70%까지 확대했다.

연 2조 원에 이르는 사적 간병비를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포괄간호서비스(종전의 보호자 없는 병원 서비스)도 올해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 1만~2만 원의 본인 부담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포괄간호서비스는 현재 102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2018년까지 전체 병원으로 확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도한 의료비 때문에 빚어지는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본인 부담 상한제도는 종전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고 공제 한도를 120만 원까지 낮춰 저소득층 병원비 부담을 크게 줄였다. 2014년에는 대상자가 48만여 명, 환급액도 8700여억 원에 달했다.

호스피스제도도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 1만8000~2만3000원만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다.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연령도 종전 75세에서 70세로 낮추었고 내년에는 65세까지 낮아지게 된다.

의료 기술의 발달로 치료 영역이 확대되고 수명 연장으로 의료 소비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이젠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곧바로 병원에 가거나 적극적인 사전 검진을 받는다. 그래서 국민의 의료 서비스 요구에 맞추는 눈높이 정책이 필요하다. 국민 생활 서비스 정책과 함께 건강한 100세 시대가 오고 있다. G

Weekly 공감

CONTENTS

2015. 11. 30 No.332 통권 433 korea.kr/gonggam



표지 이야기

박근혜 대통령이 11월 21~2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경제, 금융, 과학 분야에서 달성한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경제외교의 지평을 넓혔다.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박 대통령. (청와대)

01 이 주의 공감

04 독자마당

정상외교 G20·APEC·아세안 정상회의

06 **'포용적 성장' '글로벌 어젠다' 주도**
박근혜 대통령, G20, APEC 등
정상회의서 폭넓은 경제외교

09 **기고**
다자 정상외교 통해 경제외교 지평 확대

10 **'평화와 풍요…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 주도**
박 대통령,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서
역내 협력 강화 제안

14 **내외신 보도**
첫 여성 대통령… 한국의 장미…
창조경제와 새마을운동에 주목

특별기획 비즈니스 외교 성과

16 **엠엔지이엔티(M&G ENT) 안성주 대표**
우린 페루 3000억 원 MOU 찍고
프랑스·체코로 달려간다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20 **한국 민주주의 거산(巨山)**
역사 속으로 잠들다
첫 국가장(葬) 거쳐 국립현충원에 안장





이슈 정책

24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47명 확정**
국사편찬위
"안정적 집필 위해 명단은 비공개"

25 **멘토가 전하는 생생한 현장 이야기**
청년희망아카데미 12월 특강

핵심개혁 창조경제

52 **아이디어가 성공 창업으로 연결**
'2015 창조경제대상 슈퍼스타 V'
대상 모니 최준혁 대표


06


54


60

기획특집 국민 생활 서비스 정책 I

26 **복지 사각지대 해소 국민 행복 나라로**

28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좌절 마세요, 희망을 찾을 수 있어요"

32 **기초연금**
"주름살 펴주는 효자입니다, 허허…"

34 **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 급여**
"눈높이 맞춘 도움 흐뭇해요, 고마워요"

36 **법정 차상위 기준 상향**
"내 삶에도 희망이 자라고 있어요"

38 **장애인연금 확대**
"제 눈이 되어주고 제 발이 되어주고"

40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아파도 기둥 뿌리 뽑지 않아도 되었어요"

43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부모님 치아 치료비 목돈 안 들어요"

44 **3대 비급여제도 개선**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부담 많이 줄었죠"

46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나를 위한, 모두를 위한 복지 정보 다 있네"

정책, 이슈 & 포커스

49 **규제개혁신문고**
애로사항 있으면 두드려라!

50 **지방규제 정비**
지방·중앙 상층 규제개혁에 효과

54 **오감이 짜릿 아시아 문화 체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다양한 프로그램과 국제 문화 교류

56 **2016학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
11월 24일~12월 16일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입생은 장학금 신청 가능 대학 확인을

57 **빈 병 보증금 소주 100원·맥주 130원**
수도권 대형마트 8곳에 빈 용기 무인회수기 12대 설치

문화 & 교양

58 광복 70년 한국인 의식주 변천사⑯ 유행가의 변천
시대와 삶을 달래준 그 노래들, 'K-팝'으로 거듭났잖아!

60 야생화와 창조경제 I 6차산업
넌 꽃만 보니? 난 먹고 즐긴다

62 생활과학 이야기
킁킁거리는 암캐, 남성 호르몬 안다?

63 **書로공감**
충동의 배후

64 소통과 공감
다시 노벨문학상을 기다리며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한 〈위클리 공감〉 저작물은 '공공누리(www.kogl.or.kr)'의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 표시제도입니다.

• 〈위클리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발행일 2015. 11. 30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김종덕
제작기획 국민소통실 홍보콘텐츠과(044-203-3014)
제작협력 동아일보사
인쇄제본 프린피아
구독문의 02-2625-3294 jjsmall@korea.kr
구독 주소변경 신청 수신자부담 전화 080-851-0183

알림 게시판

더 가까이, 더 빠르게
디지털로 만나는 〈위클리 공감〉

모바일, 태블릿, PC 등 어디서나 〈위클리 공감〉의 주요 기사를 편하게 받아보고 공유하세요.

〈위클리 공감〉 디지털 기사, 이곳에서 만나세요!

탭진 리디북스 블로그 페이스북

해당 서비스는 iOS, 안드로이드 기반의 모든 디바이스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누리집 www.korea.kr/gonggam
정책브리핑 www.korea.kr
www.tapzin.com/app
ridibooks.com
koreablog.korea.kr
www.facebook.com/wegonggam

공유와 댓글을 통해 많이 참여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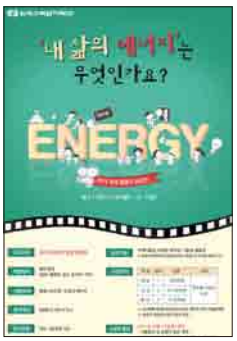


친환경 기업을 찾고 알리는 방법을 부탁해



공모 주제 환경 정보 공개제도의 효율적 홍보방안
공모 부문 캐치프레이즈 및 로고, 홍보 포스터, 웹툰·포토툰, 홍보방안
응모 자격 전 국민
접수 기간 12월 16일까지
응모 방법 공모전 응모 누리집(www.envinfo-contest.co.kr) 통해 제출
시상 내용 최우수상 1명(300만 원), 우수상 2명(각 200만 원), 장려상 5명(각 100만 원)
문 의 공모전 사무국 070-8677-2094

2015 한수원 에너지 영상 콘텐츠 공모전



공모 주제 함께 나누고픈 '내 삶의 에너지', 에너지에 대해 떠오르는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
응모 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팀은 3명 이내)
접수 기간 12월 7일까지
응모 방법 60초 이내의 영상 작품을 형식 제한 없이 제작해 한국수력원자력 누리집(www.khnp.co.kr) 통해 제출
시상 내용 금상 1명(300만 원), 은상 3명(각 100만 원), 동상 8명(각 50만 원)
문 의 공모전 담당자 02-3456-7354

〈위클리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12월 10일 오전까지 이메일(jjsmall@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위클리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삼세판 퀴즈 Quiz

01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11월 26일 오후 2시 ○○○○○에서 엄수됐다. '대도무문(大道無門)'을 좌우명으로 국가 발전을 이끌었던 고인은 '통합'과 '화합'을 유훈으로 남기고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돼 영면에 들었다.

02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Ⅱ를 지난해 7월부터 ○○○계층까지 확대했다.

03 11월 15~16일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저성장 탈피를 위한 구조개혁의 글로벌 ○○ ○○로 평가받았다.

330호 삼세판 퀴즈

정답
01 주유소 **02** 반환 **03** 올림픽

당첨자
강상진(경남 함양군 병곡면 묘동길 4)
김청윤(부산 북구 함박봉로 26)
신잔디(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대산로 11)
이상자(서울시 구로구 천왕로 56)
차영이(전남 강진군 강진읍 중앙로 88)

〈위클리 공감〉을 읽어보세요.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빈칸의 답을 '삼세판 퀴즈 332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12월 10일 오전까지 이메일(jjsmall@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우편엽서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세종특별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홍보콘텐츠과 〈위클리 공감〉 담당자 앞(우 30119)

공감 카툰



편집실에서

내 눈앞에 이제는 보기 힘든 MP3같이 생긴 기계가 놓여 있다. 손가락만큼 가느다란 몸체가 USB를 닮기도 했다. 그런데 컴퓨터란다. IT 전문 중소기업인 엠엔지이엔티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스틱PC다. 기자에겐 신선한 충격이었다. 이런 기세라면 날개가 달린 특수 조끼를 입고 세계 곳곳을 날아다니는, 어릴 적 허무맹랑한 상상이 현실이 되는 것도 머지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보는 내내 흐뭇했다.

그런데 이 혁신적인 기술이 어쩌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할 뻔했다.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 제품이라는 편견의 문턱은 너무 높았다. 고객은 제품의 탁월한 기술을 보고 손뼉을 쳤지만, 대기업의 로고가 없다는 이유로 퇴짜를 놓기 일쑤였다. 이 기업에는 힘이 되어줄 친구가 필요했다. 그런데 중남미에서 힘이 되어주는 친구를 만났다.

엠엔지이엔티는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했다. 그곳에서는 중소기업이라는 편견은 없었다. 오히려 코리아 브랜드로서 깊은 신뢰를 얻었다. 엠엔지이엔티는 페루 주정부와 3000억 원 규모의 제품 수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이를 계기로 이제 날개를 달고 세계를 누비고 있다.

화살도 여러 개가 모이면 꺾기가 힘들다는 '절전지훈(折箭之訓)'이라는 말처럼 여럿이 협력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멋진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힘을 얻고 더 큰 세상으로 나가 세계를 반짝반짝 비춰주면 좋겠다.

| **박샛별** 위클리 공감 기자 |

박근혜 대통령, G20, APEC 등 정상회의서 폭넓은 경제외교

'포용적 성장' '글로벌 어젠다' 주도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이 11월 15일(현지시간) 오전 G20 정상회의가 열린 터키 안탈리아 레그넘호텔에서 각국 정상들과 단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박경아 | 위클리 공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끝으로 G20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참석을 위한 7박 10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11월 23일(이하 현지시간) 귀국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11월 14~15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11월 18~19일), 그리고 쿠알라룸푸르에서 이틀간(11월 21~22일) 열린 아세안 관련 3개 정상회의(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 한·아세안)에 참석해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한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중소기업, 서비스산업, 에너지신산업 등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해 공감을 얻었다.

또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석을 계기로 가진 한·호주 정상회담, 앞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린 마닐라에서의 한·캐나다 및 한·필리핀 정상회담, G20 참석 길에 가진 한·영 및 한·인도 정상회담, 그리고 페루·베트남·멕시코 등 정상과의 면담을 통해 개별 국가와의 경제 협력 확대에도 힘을 쏟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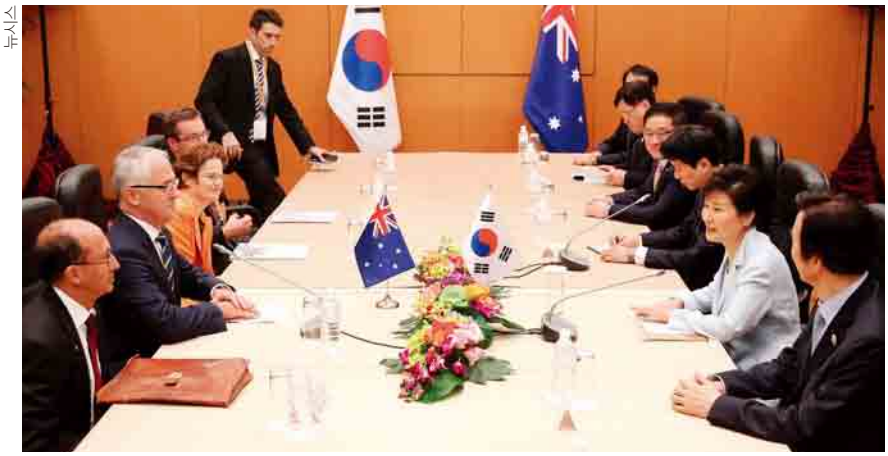
혁신·개혁 지난해 1위, 이행 평가 올해 2위 → 구조개혁의 글로벌 모범 국가로 자리매김

이번 순방에서 거둔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저성장 탈피를 위한 구조개혁의 글로벌 모범 국가로 평가받은 것이다.

박 대통령의 핵심 경제전략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의 성장전략은 지난해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제출된 G20 국가별 성장전략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제고 효과 1위로 평가된 데 이어 올해에도 성장 효과가 큰 중점과제 이행 상황 평가에서 2위로 평가받았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실시한 G20 국가별 성장전략 평가에서 한국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4대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11월 22일 오후(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맬컴 턴불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부문 구조개혁의 충실한 이행으로 지난해와 올해 모두 최상위권에 포함된 유일한 국가가 됨으로써 '구조개혁의 글로벌 모범 국가'로 인정받은 것이다.

메가 FTA 관련 명확한 견해 제시 → RCEP 협상 가속화, FTAAP 촉진 계기 마련

박 대통령은 다자 간 정상회의에서 '메가(Mega)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명확한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와 아세안 등 총 16개국이 참여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가속화하고 APEC의 최종 목표인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박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은 역내 경제 통합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RCEP 협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러한 지역 경제 통합 노력이 FTAAP 실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해 궁극적으로 다자 간 무역체제 발전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G20 정상선언문, APEC 정상선언문, 그리고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11월 22일 발표된 RCEP 공동선언문 등에 반영됐다.

APEC 정상선언문 중 "TPP 협상 타결을 포함해 최근 역내 FTA 진전과 FTAAP를 향한 가능한 경로들의 성과를 확인하며, RCEP 협상의 조기 완료를 독려한다(7항 b)", RCEP 정상선언문 가운데 "2016년 RCEP 협상이 타결되어 이를 통해 역내 및 세계 경제 통합에 크게 기여하고, 공평한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며, 경제 협력을 강화할 것을 기대한다(5항)" 등은 박 대통령의 발언이 반영된 내용들이다.

G20, APEC, 아세안 정상회의의 경제외교 성과 종합

1. 혁신계획 : 2014년 1위 이어 올해 성장전략 이행 평가도 G20 중 2위 → 구조개혁의 글로벌 모범 국가로 자리매김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4대 부문 구조개혁의 충실한 이행으로 G20 회원국 성장전략 중 GDP 제고 효과 1위 평가에 이어 이행 평가에서 2위, 2년 연속 최상위에 포함된 유일한 국가

2. 'Mega FTA' 관련 명확한 입장 제시 → RCEP 협상 가속화, FTAAP 촉진 계기마련

- 최근 TPP 타결에 따라 RCEP, FTAAP 논의도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경제 통합과 다자무역체제의 진전을 위한 합의 도출 주도

3. 중소기업·서비스산업·에너지신산업 정책 방향 제시 → 우리나라 정책 경험 전파

-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 촉진, 규제개혁을 통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에너지신산업 모델 확산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체계의 확산 등 구체적 정책 방향 제시하고 정상 합의 도출에 기여

4. 공식·비공식 양자회담 → FTA 효과 극대화와 기업 시장 개척 활로 마련

- 바쁜 다자 일정 속에서도 공식·비공식 양자회담을 최대한 활용해 기업활동 지원(필리핀 전기요금, 인프라 진출), 양자 FTA 진전(한·베트남 FTA 비준, 한·멕시코 FTA 협상 재개 가능성 타진) 등 실질 협력 증진

중소기업·서비스산업·에너지신산업 정책 방향 제시 → 우리 정책 경험 전파

박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저성장 위기 극복과 발전 격차 해소를 위해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핵심 주제로 논의한 이번 G20

뉴시스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이 11월 18일 오후(현지시간) 마닐라 몰 오브 아시아 아레나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 입장하며 베니그노 아키노 3세 필리핀 대통령 내외와 인사를 하고 있다.

과 APEC 정상회의에서 중소기업, 서비스산업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 촉진, 규제개혁을 통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에너지신산업 모델 확산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체계의 확산 등에 관해 한국의 정책 경험과 성공 사례 등을 구체적인 예로 들며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정상회의 합의 도출에 기여했다.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GVC 참여를 위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강조하고 관련 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이 중소기업의 GVC 참여 확대를 강조한 발언과 관련 기술 지원 등 한국의 기여 관련 언급은 APEC 정상선언문 3(a)항, 3(b)항 및 G20 정상선언문 11조에 반영됐다.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 활용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장애요인을 제거해나가자는 제안은 APEC 정상선언문 3(e)항에 담겼다.

박 대통령은 G20, APEC 정상회의에서 서비스산업 교역 확대 및 규제개혁을 통한 서비스 경쟁력 강화가 강조됨에 따라 우리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의사가 있다고 피력했다. 박 대통령의 서비스 교역 규제 완화 관련 발언은 G20 액션플랜 등에 반영됐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이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로 대표되는 신기후체제 성공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G20·APEC에서 ▶중소기업의 GVC 참여 촉진 ▶교역 확대 및 규제개혁을 통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확대 ▶에너지신산업 사업 모델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등 구체적 협력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캐나다 정상회담 등 양자회담 → FTA 효과 극대화와 기업의 시장 개척 활로 마련

박 대통령은 여러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기간 중 공식, 비공식 양자회담을 통해 FTA 효과 극대화 방안과 우리 기업의 시장 개척 활로를 마련했다.

박 대통령은 11월 22일 쿠알라룸푸르에서 동아시아정상회의 참석 중 맬컴 턴불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외교·안보, 경제·통상 등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한반도 문제 등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대통령은 양국이 공동의 가치를 지향하는 중견국으로서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개최 ▶FTA 발효(2014년 12월) ▶믹타(MIKTA·한국 주도의 중견국 간 협의체) 공동 참여 등을 통해 구축한 발전 기반을 토대로 양자관계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적 이슈에 대해서도 협력을 한층 강화하자고 제안했으며, 턴불 총리는 이에 대해 동의를 표했다.

박 대통령은 턴불 총리와 정보통신기술(ICT) 신기술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개발(R&D) 협력 확대 등을 논의하고 우리의 최대 광물자원 수입국인 호주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참여 중인 유연탄광 개발사업이 토지 보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열린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의 한·영 정상회담(11월 15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한·인도 정상회담(11월 16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한·캐나다 정상회담(11월 18일), 베니그노 아키노 3세 필리핀 대통령과의 한·필리핀 정상회담(11월 18일) 등을 통해 FTA 이행 또는 추가 자유화를 추진하고 우리 국민 보호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교역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우리 국민 안전을 강화하게 됐다.

또한 쯔엉떤상 베트남 주석,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 등과 다자 회의장에서 만난 기회를 활용해 FTA 등 관심 사안에 대한 공조 의지를 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APEC 참석 중 만난 베트남 주석과 한·베트남 FTA 발효를 위한 베트남 측의 준비 상황에 대해 문의하며 연내 발효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멕시코 대통령과는 G20 정상회의에 이어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 스탠딩 외교를 펼치며 한·멕시코 FTA 협상 재개를 요청, 긍정적 입장을 확인했다. G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다자 정상외교 통해 경제외교 지평 확대

신성원 |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장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15~16일(이하 현지시간)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18~1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21~2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3(한·중·일)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했다.

G20 정상회의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성장전략과 이행 성과를 G20 국가 중 2위로 평가했다. 지난해에는 한국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의 국내총생산 제고 효과를 G20 회원국 중 1위로 평가했는데 올해에는 우리 국회의 규제 관련 법안 처리 지연으로 한 단계 낮아진 것이다.

IMF와 OECD가 한국을 높이 평가한 것은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과 이행 측면에서 한국을 '글로벌 모범 국가'로 인정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글로벌 기업들의 역외 탈세 차단과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G20 정상선언문과 '액션플랜'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인적자원 개발과 보호무역 저지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다자 국제회의에서 국제 테러 문제, 세계와 아·태지역 경제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상황을 적극 설명함으로써 정상외교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안탈리아 G20 정상회의에서는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동시다발 테러에 대한 각국의 공조 및 대응방안이 핵심 의제로 급부상했다. 파리의 동시다발 테러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G20 정상들은 테러자금 차단, 폭력적 극단주의와 최근 시리아 난민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 노력을 촉구했다.

G20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테러 척결 의지를 담은 특별공동성명을 채택했는데 이제까지 경제 문제를 주로 논의해온 G20 정상회의에서 정치적 의제를 다룬 공동성명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G20 정상들이 채택한 반테러 특별공동성명에는 테러 관련 자산 동결과 금융제재 강화 등 박 대통령이 강조한 테러자금 차단 문제도 반영됐다.

박 대통령은 '포용적 세계와 더 나은 세계 만들기'를 주제로 11월 18~1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지역 경제 통합을 통한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공동체 건설을 통한 포용적 성장 등에 대해 회원국 정상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박 대통령은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유치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APEC 회원국들이 이를 환영함으로써 한국의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가 확정됐다.

11월 21~2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아세안+3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에 참석한 박 대통령은 한국 주도로 한·일·중 3국 정상회의가 재개됐음을 소개하고 한·중·일 3국 협력체제 복원을 통해 아세안+3 협력체제 강화에 기여하겠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는 의장성명과 함께 제2차 동아시아비전그룹 후속조치 최종 보고서와 지역 경제성장 및 금융 안정에 관한 공동성명이 채택됐다. 제2차 동아시아비전그룹 후속조치 최종 보고서는 한국이 주도한 것으로 아세안+3 협력방안 및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의 로드맵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아시아정상회의는 "2016년까지 RCEP 협상을 타결해 경제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EAS 회원국들이 한목소리로 분명한 대북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협조 요청을 했다.

호주와 말레이시아, 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에 관한 성명'을 채택했다.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G20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에 참석한 박 대통령은 다자 국제회의에서 주요국 정상들과 국제 테러 문제, 세계와 아·태지역 경제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상황을 적극 설명함으로써 다자 정상외교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한국의 국익 증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G



박 대통령,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서 역내 협력 강화 제안

'평화와 풍요…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 주도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이 11월 22일 오전(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박경아 | 위클리 공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7박 10일간의 3개국 순방 마침표를 찍은 곳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다. 박 대통령은 11월 21~22일(이하 현지시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3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그리고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지역 협력 확장과 안보 협력 기반 구축에 나섰다.

이들 3개 정상회의는 아세안(10개국)을 중심으로 ▶한·중·일을 더한 아세안+3(13개국) ▶아세안+3에 호주, 인도, 뉴질랜드, 미국, 러시아까지 포함한 18개국(EAS)까지 확장되는 '3중 동심원' 구조의 동아시아 지역 협력체다.

박 대통령은 이들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지역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와 인프라 구축 등을 제안하고, 우리가 주도해온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위한 보고서 채택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지역 안보 측면에서 북한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등을 위한 논의에도 적극 참여했다.

아세안+3 정상회의 한국 주도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 목표 최종보고서 채택

박 대통령은 11월 21일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8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경제, 금융, 과학 분야에서 그간 이 협력체가 달성한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아세안+3는 그동안 경제, 금융, 과학 등 20여 개의 다양한 분야에서 기능 협력을 발전시켜 역내 가장 제도화된 협력체로 성장해왔다"고 밝히고, 아세안+3의 미래 협력을 위한 방안으로 ▶아세안+3의 강점인 기능 협력 강화 ▶제2차 동아시아비전그룹(EAVGII) 후속조치 행동계획의 충실한 이행 ▶동북아와 아세안 간 상호 협력 강화 등 세 가지 의견을 제시하면서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위한 우리의 협력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아세안은 올해 말 '아세안 공동체'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이번에 개최된 아세안+3 정상회의 기간 중 아세안 공동체의 지향점을 담은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에 대한 서명식이 개최됐다. '아세안 공동

뉴시스



뉴시스



1 박근혜 대통령이 11월 21일 오후(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 갈라 만찬에 참석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 박근혜 대통령이 11월 21일 오후(현지시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리커창 중국 총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체 비전 2025'란 2025년 아세안 공동체의 실질적인 완성을 위한 아세안의 3개 분야별(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공동체 구상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우리가 주도해온 '제2차 동아시아비전그룹(EAVGII) 후속조치 최종보고서'가 채택됐다. 이 보고서는 향후 아세안+3 협력방안 및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의 로드맵으로 기능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지역 정세와 관련해 "북핵 문제는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로서 그 해결을 위해 대화와 협력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도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를 북한에 일관되게 전달해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와 함께 EAVGII 후속조치 최종보고서가 채택됨으로써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위한 큰 동력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것에 사의를 표명했다. 더불어 최근 재개된 한·일·중 정상회의가 아세안+3 협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했다면서 3국 정상회의 재개를 위한 박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했다.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북핵 문제 해결 없이 역내 평화·안정 보장 없어

박 대통령은 다음 날인 11월 22일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10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다른 회원국 정상들과 전통적 안보 이슈, 폭력적 극단주의를 포함한 비전통적 안보 도전, 그리고 EAS의 미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회의 의제는 ▶지역 안보 정책 및 구상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금융 안정 ▶비정규 이주자와 인신매매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이다.

이번에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는 아세안 공동체 출범 및 전 세계 동시다발적 테러 발생 등의 상황에서 개최돼 어느 때보다 정상간 전략포럼으로서의 시의성이 두드러졌다.

박 대통령은 먼저 최근 바마코(말리), 파리, 베이루트(레바논) 및 앙카라(터키)에서의 테러 공격, 러시아 항공기에 대한 테러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고 그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했다.

전통적 안보 이슈와 관련해서는 "동아시아 지역이 여전히 전통적인 지역안보 이슈로 인해 과거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 환경에 처해 있다"면서 북핵 문제가 이러한 이슈의 대표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능력 고도화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 해결 없이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그 해결을 위해 EAS 회원국들이 한목소리로 분명한 대북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평화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다른 EAS 회원국 정상들도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준수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EAS에서는 특히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이 11월 21일 오후(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시됐다. 대다수 정상들은 남중국해에서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박 대통령도 "남중국해는 전 세계 에너지 교역량의 3분의 1 이상이 통과하는 주요 해상교통로이고 한국도 원유 수입량의 90%, 수출입 물동량의 30% 이상이 이 항로를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한국은 그간 남중국해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 보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해온 바 있으며, 모든 관련 당사국들은 남중국해 행동선언(DOC)의 문언과 정신, 그리고 비군사화 공약들을 준수함으로써 남중국해의 평화·안정 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 공동 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동반자로 협력 강화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22일 오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17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10개국 정상들과 한·아세안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가 아세안이 정치적 역량을 모아 동아시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공동체를 탄생시킨 역사적인 해로 기억될 것"이라며 "한국과 아세안은 올해 8월 채택된 '한·아세안 행동계획 2016~2020'을 나침반으로 하여 공동 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동반자"라고 말했다.

한·아세안 행동계획은 한국과 아세안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전제 아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상으로 5년 주기로 채택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전날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가 제시하고 있는 정치·안보 공동체, 경제 공동체, 사회·문화 공동체 달성을 위해 한국이 계속 기여해나가고자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먼저 정치·안보 공동체로서의 아세안이 추구하는 '대량살상무기와 핵무기가 없는, 전쟁 없는 사회'라는 목표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이 목표가 한반도에서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핵 문제는 한국이 아세안과 정치·안보 분야에서 협력해나가는 데 가장 중시하는 사안이라면서 아세안이 이에 대해 분명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기후변화, 재난관리와 같은 초국경적, 비전통적 안보 위협은 그 성격상 국가들 간의 공동 대응이 긴요한 만큼 한·아세안 간 협력 확대를 기대했다.

경제 공동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한국은 2대 교역 파트너이자 투자 대상인 아세안과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협력 저변을 더욱 넓힐 수 있도록 2017년 아세안 문화원 개원, '2017 한·아세안 문화 교류의 해' 기념행사 등을 착실히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아세안 공동체의 완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마을 운동을 통한 한국의 농촌 개발 경험을 아세안 국가들과 계속 공유해 나갈 것"이라며 아세안 차원의 협력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변화를 위한 아세안 정상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아세안 정상들은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대화

뉴시스



1



2

뉴시스

1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21일 아세안+3 정상들과 동아시아기업인협의회(EABC)와의 대화에도 참석했다. 2 박근혜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이 11월 2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기념 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관계 수립 25주년을 계기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양측 간 협력의 모멘텀을 크게 제고했다면서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한 한국의 기여를 평가했다. 또한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제2차 한·아세안 비즈니스 협의회가 양측 중소기업 간 유용한 협력 채널로 내실 있게 발전하기를 기대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2016년 협상 타결 목표로 공동선언문 발표

한편 박 대통령을 비롯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참여 16개국 정상들은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11월 22일 내년 협상 타결을 목표로 노력을 배가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RCEP 정상 공동선언문은 RCEP 16개국 정상들이 ▶RCEP 협상의 실질적 진전(Substantial Progress)을 환영하고 ▶RCEP 장관회의에서 도출된 성과를 바탕으로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의 실질적 협상 및 협정문 협상이 심화된 것을 평가하며 ▶각국 협상단이 노력을 배가하여 RCEP 협상이 2016년에 타결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당초 2015년 타결 목표에서 1년 연기된 것이다.

RCEP는 한·중·일 3개국과 아세안 10개국, 호주·뉴질랜드·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지역 '메가(Mega)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2년 11월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 개시가 선언된 후 지금까지 10차례의 공식 협상과 3차례의 장관회의가 개최됐다.

RCEP 참여국들의 인구는 34억 명(전 세계 48.7%)에 달해 인구 규모 기준으로 세계 최대 경제공동체가 될 전망이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21조6000억 달러, 교역 규모는 10조6000억 달러로 유럽연합(EU)을 능가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버금간다.

박 대통령은 전날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과 동아시아기업인협의회(EABC)와의 대화'에서 RCEP 협상 가속화를 희망한 EABC의 건의에 대해 "조기 타결을 위한 협상 가속화를 지지한다"며 공감을 표한 바 있다.

이날 RCEP 정상 공동선언문 발표는 세계 인구의 절반과 세계 GDP의 30%를 차지하는 16개 참여국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협상 가속화를 위한 모멘텀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향후 정부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 협정을 목표로 RCEP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의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G

프랑스·체코 순방 예정 COP21 참석, 체코 총리와 정상회담·비세그라드그룹과 협력

G20, APEC, 아세안 정상회의를 순조롭게 마친 박 대통령은 11월 3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참석차 11월 29일부터 7일간 프랑스와 체코를 방문한다.

박 대통령은 교토의정서 이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문제를 다루는 이번 COP21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며,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를 방문할 계획이다. 이어 체코를 방문해 보후슬라프 소보트카 체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등 동유럽 4개국으로 구성된 '비세그라드그룹'과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첫 여성 대통령… 한국의 장미… 창조경제와 새마을운동에 주목

조영실 | 위클리 공감 기자

11월 15일(이하 현지시간)부터 22일까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3(한·중·일)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로 이어진 일련의 글로벌 경제협력 회의는 13일 발생한 파리 테러로 관련 보도보다는 테러 척결에 대한 특별성명과 정상선언 채택이 주로 다뤄졌다.

하지만 각 회의를 주최한 터키, 필리핀, 말레이시아 언론은 자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을 크게 환영하는 기사와 함께 한국에 대해 우호적으로 보도하며 눈길을 끌었다. 국내 언론은 박 대통령이 잇달아 열린 정상회의에서 주도적이고 인상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했다.

11월 13일자 터키 사바신문은 '이것이 세계를 지배하는 20개국이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실업률, 인구, 국내총생산(GDP) 등을 설명했다. 11일 일간지 악삼은 메르켈 독일 총리,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과 함께 박 대통령을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세 명의 여성 대통령'이라 소개하며,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인 박 대통령을 조명했다.

가제트 우자이는 15일 '소셜미디어를 활발히 사용하는 정상들' 제하 보도에서 세계 각국 정상들이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을 활발히 사용한다며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등을 소개했다. 기사에 따르면 G20 정상 중 소셜미디어 팔로어가 1000만 명 이상인 사람은 박 대통령을 포함해 여덟 명뿐이다.

이 밖의 터키 신문과 방송, 통신은 G20 회의장이 있는 터키 안탈리아에 도착한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박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악수 장면 등을 내보냈다. 특히 터키 정치인과 학자들은 정상들의 방문이 터키의 발언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촉구할 것으로 기대하며 호주, 프랑스, 영국 등과 더불어 한국을 자유 지수가 높은 나라로 설명했다.

11월 18~19일 양일간 APEC 정상회의를 주재한 필리핀의 현지 언론은 APEC 회원국 정상들의 성장 불균형 시정 합의와 한·필리핀 경제협력 확대 추진과 관련해 한국의 경제 발전과 현황에 주목했다.



말레이시아 최대 유력 신문 더스타는 아세안+3 정상회의를 위해 내방한 박 대통령 관련 기사에 '한국의 장미가 도착하다'라는 제목을 붙였다(11월 21일). 사진은 더스타 온라인 화면 캡처.

박 대통령 대대적 환영 분위기
한국 경제 발전과 산업 주목

18일 ABS-CBN 등 필리핀 방송은 한국을 경제 규모 세계 13위의 제조업과 반도체 생산 선두국가로 설명하고,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이 필리핀의 경제성장을 높게 평가한 발언을 전했다.

비즈니스월드 신문은 최근 각광받는 한국의 마이스(MICE)산업과 외국 관광객 환대 캠페인 'K스마일'을 다수 언급했다.



1 11월 14일 터키 일간 휴리예트에 실린 '터키 안탈리아에 집중된 전 세계의 시선' 기사. 2 우리나라의 외국 관광객 환대 캠페인 'K스마일'을 소개하며 한복 입은 박 대통령의 모습을 실은 필리핀 신문 필리핀 스타 기사.

한편 APEC 누리집에는 정상회의 전날 APEC 사무국과 박 대통령이 가진 서면 인터뷰가 실렸다. 박 대통령은 기사에서 저성장의 고착화를 막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 통합에 속도를 낼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 통합의 혜택을 구성원이 골고루 나누는 '포용적 성장'과 내수와 수출, 산업 부문 간 '균형 있는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창조경제와 발달된 전자상거래, 새마을운동 등을 APEC 회원국과 공유해 공동 발전을 모색하겠다는 뜻도 표명했다.

'한국의 장미가 도착하다'. 말레이시아 최대 유력 신문 더스타는 21일자 기사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를 위해 내방한 박 대통령을 장미에 비유하는 등 크게 환영했다. 기사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한 유일한 여성 지도자인 박 대통령에 대해 "가시나무들 사이의 유일한 장미(She was the only rose among the thorns)"라고 언급하며 옷차림이 근사했다고 설명했다. 더스타 페이스북 공식 계정에 함께 게재된 해당 기사는 당일 가장 많이 본 기사 1위에 랭크되어 '좋아요' 1000회 이상을 기록했다.

말레이시아 주요 통신과 신문은 '한·중·일과의 상호 협력은 평화·번영 보장' 등을 기사 제목으로 뽑으며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내용을 보도했다.

국내 언론은 10일간 이어진 해외 순방에서 박 대통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했다.

11월 25일 매일경제는 "박 대통령의 발언이 G20 정상선언문(11조)과 APEC 정상선언문(7항), RCEP 공동선언문(5항)에 고스란히 반영됐다"면서 "박 대통령은 잇달아 열린 정상회의에서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발언자로 나서 회의를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에 긍정 작용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신문은 이어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박 대통령은 중국이 주도하는 FTAAP 등 역내 통합 모델을 미·중 역학 구도가 아닌 실용적 측면에서 강조하면서 대다수 국가의 지지를 얻어냈고, 남중국해 항행·상공비행 자유를 강조한 대목에선 중국 눈치를 보지 않는 원칙론으로 지지를 얻었다"고 말한 외교 전문가의 발언을 덧붙였다.

'박 대통령 연설은 머리에 쏙쏙'. 다음 날 이 신문은 박 대통령과 APEC 기업자문위원회(ABAC) 기업인과의 대화 후일담을 실었다. APEC 정상회의 참석자들과 소속 기업인의 대화에서 박 대통령은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융합해 개발한 에너지 자립섬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신문은 설명을 들은 한 기업인이 "박 대통령은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머리에 쏙쏙 들어왔다"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中 언론, 박 대통령 테러 척결 동참과 북핵 포기 호소 언급

한편 미국, 유럽과 일본, 중국 언론의 보도 초점은 APEC 정상회의의 무역 관련 사안보다 파리 테러와 미·중 간 긴장관계에 맞춰졌다. 파리 테러로 각국 정상의 테러·안보 논의에 대한 사실 위주의 보도 가운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간 갈등에 대해선 자국의 입장을 대변했다.

16일 AP통신은 "오바마 대통령은 마닐라에서 '아시아를 얻은 지도자'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말한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어니스트 바우어 동남아 자문의 평가를 게재했다. 필리핀이 중국과 공식적으로 남중국해 영토 분쟁을 벌이는 5개 APEC 회원국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데 대한 풀이다. 이튿날에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목소리가 필요해졌다"고 입을 모은 APEC 정상회의의 파리 테러 규탄 선언문 내용을 옮겼다.

일본 언론은 사설 중심으로 남중국해 쟁점을 강조하는 반면, 중국 언론은 관련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 등 대립 구도를 보였다.

다만 중국의 중궈신원왕(中國新聞網) 등 언론은 16일 G20 정상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테러는 암적 존재"라며 테러 척결 노력에 동참한 것과 북핵 포기를 호소한 언급을 부각했다. G

엠엔지이엔티(M&G ENT) **안성주** 대표

우린 페루 3000억 원 MOU 찍고 프랑스·체코로 달려간다

박샛별 | 위클리 공감 기자 / 사진·엠엔지이엔티

'괄목상대(刮目相對).'

태블릿PC 전문 IT업체인 엠엔지이엔티(M&G ENT)의 성장세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 업체는 2013년을 기점으로 불과 3년 만에 눈부신 성장을 일궈냈다. 세계 최초로 윈도와 안드로이드를 연동해 사용할 수 있는 태블릿과 USB(휴대용 소형 저장장치)처럼 한 손에 들어오는 스틱PC를 개발했고 현재 기술력을 인정받아 세계 공략에 나서고 있다.

엠엔지이엔티에 기대 이상의 수확을 가져다준 계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이었다. 그중 페루 아프리막주 정부와 ICT사업 2억7000만 달러, 한화로 3000억 규모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쾌거를 이뤘다.

"중남미는 우리에게 그저 먼 나라일 뿐이었는데, 중남미 순방을 다녀온 후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기회의 땅이 됐죠."

엠엔지이엔티의 안성주 대표는 최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에 경제사절단으로 참가한 이후 해외 수출이 눈에 띄게 늘었기 때문이다.

엠엔지이엔티는 태블릿PC, 스틱PC 등을 개발해 판매하는 PC·IT 전문업체다. IT업체에는 보통 공학계 출신이 많지만 안성주 대표는 체육학과 정치학을 전공했다. 또 그의 첫 사업 아이템은 DVD방 프랜차이즈였다. 그런 그가 어떻게 IT 사업에 발을 들이게 됐을까. 그에게 전환점이 되었던 것은 바로 빔 프로젝터였다. DVD 상영을 위해 꼭 필요한 빔 프로젝터 램프가 당시 1개당 50만 원 정도로 고가에 거래됐는데, 비용 절감을 위해 중개상 없이 직접 구매를 했더니 원가가 10만 원 정도라는 걸 알게 됐다. 이후 안 대표는

박해윤 기자



엠엔지이엔티 안성주 대표는 세계 최초로 듀얼부팅 태블릿PC인 투키프로를 출시했다.







1 엠엔지이엔티는 지난 9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중동·중남미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에서 페루 기업과 MOU를 체결했다. **2** 한·페루 비즈니스 파트너십 부스에서 바이어들에게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3** 엠엔지이엔티의 투키 시리즈.

빔 프로젝터 램프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수요가 가장 많은 교육계와 주로 거래를 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시중에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이 보급되면서 교육계에는 스마트 러닝(인터넷, 전자장비 등을 활용한 교육) 바람이 불고 있었던 것. 안 대표는 거기에 착안해 태블릿PC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IT업계에 발을 들였다.

세계 최초로 듀얼부팅 태블릿PC 개발
스마트 교육·IT 제품 경쟁력 확보

엠엔지이엔티는 탄탄한 기술력을 갖췄다. 2005년 설립 이후 2012년 세계 최초로 듀얼부팅이 가능한 태블릿PC인 투키 시리즈 상용화에 성공했다. 기존 태블릿PC는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PC, 노트북 등은 윈도 기반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 태블릿과 컴퓨터를 번갈아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비해 투키프로(Twokey Pro)는 안드로이드와 윈도 운영체제를 모두 사용할 수 있어 하나의 PC로 모든 수업 진행이 가능하다. 즉 한글,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피스 등 윈도용 소프트웨어로 하는 작업이 가능하면서, 안드로이드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투키 시리즈인 '투키미러링'은 HDMI(영상신호와 음향신호를 압축하지 않고 전송해 고품질의 음향과 영상을 즐길 수 있는 디지털 방식의 연결장치)를 지원하는 모든 기기 및 운영체제(OS)와 호환되는 미러링 장치다. 미러링이란 노트북,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의 고해상도 영상과 음성을 TV나 프로젝터와 같은 대형 화면에 무선으로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10m만 벗어나도 끊어짐과 혼선이 생기는 경쟁 제품에 비해 투키미러링은 70m까지도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이 특징이다.

이후에도 양방향 교육용 솔루션 투키ES, 휴대성을 갖춘 세계 최초 듀얼부팅 스틱PC인 투키스틱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마트 교육 및 IT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태블릿PC인 투키프로 등 투키 시리즈는 주로 교육기관, 정부기관, 기업 등에 유통됐고 판매 비중은 국내가 80~90%, 해외 10% 수준이었다. 사업 시작 단계에서도 결과는 나쁘지 않았다. 연 매출 50억 원 이상을 올리며 국내에서 이름을 조금씩 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큰 난관이 있었다. 고객의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편견이었다. 모두가 제품을 시연해보고 기술력에 감탄을 했지만 대기업 제품이 아니란 이유로 거절당한 적도 많았다. 안 대

엠엔지이엔티의 해외 수출 현황



표는 이에 돌파구를 모색하기 시작했고 그러던 중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중소기업 지원책을 알게 됐다.

"이전에는 중소기업 지원책 하면 자금 대출 정도만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체계적인 지원책이 있어 놀랐죠."

국내 중소기업의 편견 넘어 해외 진출

페루 아프리막주 정부와 2억7000만 달러 양해각서 체결

엠엔지이엔티는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에 경제사절단으로 참가했다. 안 대표는 콜롬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 등 중남미 4개국을 방문해 경제인 비즈니스 포럼과 무역·투자 진출·프로젝트 상담회에 참여해 바이어들을 만났다. 그곳에서 얻은 수확은 엄청났다.

IT 유통업체로 40여 년간 도시바, 필립스 등 주요 브랜드 제품만을 취급해온 칠레의 A사는 듀얼부팅 투키 브랜드의 태블릿PC에 매료돼 8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했다. 특히 페루 아프리막주 정부와는 ICT 사업 스마트 스쿨 기반 조성을 위한 2억7000만 달러, 한화로 3000억 규모의 MOU를 체결했다.

이후 9월 코트라의 정상외교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된 중남미 바이어들의 한국 방문에서도 엠엔지이엔티는 페루 업체에 교육용 기자재를 공급하기로 하고 17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다. 이런 결과는 수출을 시작한 지 1년 만의 성과로 회사의 국내외 유통 비중을 거꾸로 뒤집었다.

안 대표는 2016년에는 국내 시장 10%, 해외 비중을 80~90%로 정하고 해외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한국 브랜드의 인지도 상승을 체감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 설명회 등에 참가하면 바이어들이 한국 브랜드에 호감을 갖고 제품을 바라본다는 것이다.

"해외에 나가면 코리아 브랜드가 많이 성장했다는 걸 실감합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 인정해줍니다. 그 점 또한 우리 브랜드가 해외로 진출하는 데 큰 힘이 됐죠. 이제는 우리 투키가 한국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가 되도록 노력해야죠."

이렇듯 엠엔지이엔티는 완벽한 한국 브랜드로서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제품 개발과 제조를 모두 국내에서 하고 있다. 이전에는 중국에서 제조를 하기도 했지만 관리감독이 쉽지 않고 제품의 질 또한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엠엔지이엔티는 자체 연구소







1 지난 10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도서전에서 다양한 바이어들이 투키 제품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2** 엠엔지이엔티는 지난 6월 중동지역에서 열린 IT 전략포럼 및 상담회인 K-Tech Middle East에도 참가했다. **3** 콜롬비아와의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에서 바이어들과 부스에서 상담하는 모습.

와 제조 공장을 두고 있다.

하지만 해외 진출을 하며 힘든 점도 있다고 했다. 안 대표는 북미 시장은 애플이 장악하고 있어 진입 장벽이 높고, 동남아 시장은 희망 단가가 낮아 현실적으로 이를 맞추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입견을 갖지 말고 세계 시장에 문을 두드려보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중남미는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시장이었어요. 하지만 경제사절단을 통해서 가보니 또 다른 블루오션이더라고요. 생각만 하는 것보다 직접 가서 보고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트라, 중소기업 지원제도 해외 진출의 디딤돌 역할

안 대표는 한국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국가의 지원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은 1% 미만일 겁니다. 하지만 코트라 등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책이 생각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특히 해외 진출을 돕는 자리도 많고요. 혼자서 끙끙 앓는 것보다 문을 두드려본다면 좋은 결과가 생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엠엔지이엔티는 이제 세계를 무대로 동분서주하고 있다. 특히 코트라와 한국무역협회, 이러닝산업협회 등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를 활용해 더욱 공격적으로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안 대표는 11월 30일부터 3일간 프랑스 파리, 체코 프라하에도 코트라 경제사절단 VIP 순방을 떠난다. 또한 12월 4일에는 그리스에서 열리는 1:1 비즈니스 매칭 행사에 참여해 유럽 바이어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어 12월 13일에는 정보통신사업진흥원과 이러닝산업협회에서 주관하는 스마트 러닝 업체 해외 마케팅 행사에 참여해 중동 두바이, 아부다비를 방문한다.

앞으로 그는 중동 시장에도 진출하고 싶다며 투키가 세계적인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단기간에 정말 큰 수확을 거두게 되니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하지만 저희만의 독자적인 기술력과 품질을 바탕으로 더 넓은 시장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중동 시장도 진출할 거고요. 앞으로 한국 하면 투키를 떠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G

한국 민주주의 거산(巨山) 역사 속으로 잠들다

첫 국가장(葬) 거쳐 국립현충원에 안장



김영삼 전 대통령이 11월 22일 서거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거산(巨山)이자 경제, 정치, 군에 이르는 사회개혁을 이끌었던 최초의 문민정부 대통령은 역사 속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 전 대통령의 국가장 영결식은 11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거행됐다.

조영실 | 위클리 공감 기자

김영삼 전 대통령이 패혈증과 급성 심부전으로 11월 22일 오전 2시 서거했다(향년 88세, 1927~2015).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거산(巨山)이었던 김 전 대통령은 경제, 정치, 군(軍) 등 사회 전 분야의 개혁을 단행하며 한국 현대사의 새 국면을 열었고, 2015년 겨울 역사 속으로 자리를 옮겼다.

하늘도 고인을 배웅했다. 하얀 눈발이 흩날리던 2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김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엄수됐다. 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 국가장으로 치러진 김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는 유족과 각계 주요 인사 등 1만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황교안 국무총리 겸 장례위원장은 조사를 통해 "김영삼 전 대

뉴시스







동아DB





1 박근혜 대통령이 11월 23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2 1983년 5월 5공 독재에 항거해 23일간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벌였다. 3 1987년 6월 민주항쟁 당시 민주화추진협의회 공동의장으로 6·26 대행진에 참석하려다 경찰 버스에 실려 가고 있다. 4 1988년 10월 당시 세 야당 총재가 손을 맞잡고 연내 5공 청산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삼(민주), 김종필(공화), 김대중(평민) 당시 총재. 5 1990년 2월 '3당 합당'을 주도해 민주자유당 현판식을 했다.

통령님은 평생 동안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다"면서 "우리 국민이 사랑한 김영삼 전 대통령님, 이제 생전에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으시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길 빈다"며 고인의 넋을 기렸다.

영결식 후 운구 행렬은 김 전 대통령이 46년간 살아온 상도동 자택과 김영삼기념도서관을 지나 장지인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이동했고, 김 전 대통령은 현충원 장군 제3묘역에 안장됐다.

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오후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빈소를 방문해 애도의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등 7박 10일간의 다자회의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날 오후 2시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했다. 박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씨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했고, 김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의 손을 잡고 깊은 애도와 추모의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26일 영결식 당일 오전에도 빈소를 찾아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명박 전 대통령,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 여야를 막론한 정계 인사들도 조문했다. 김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감사원장, 국무총리에 임명해 대선주자로 키운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빈소를 찾아 방명록에 '음수사원(飮水思源)'이라 적고 "물을 마시면 물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하라는 말씀대로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기여하신 공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최연소 국회의원 당선, 최다선 기록
'3당 합당'으로 대통령 당선

1927년 경남 거제에서 태어난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54년 5월 제3대 민의원 선거에서 고향인 거제에서 출마해 역대 최연소(만 25세)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그리고 그해 12월 이승만 정권의 3선 개헌에 항의해 탈당한 뒤 1990년 3당 합당 때까지 36년간 야당 생활을 했다.

1958년 제4대 국회의원 선거 때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고향 거제를 떠나 부산으로 정치 활동 기반을 옮기게 된다. 김 전 대통령은 총 아홉 차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부산에서만 일곱 차례 당선됐다. 최다선(最多選) 기록이다. 그의 호 '거산(巨山)'은 출생지인 거제





1 60세이던 1987년 10월 통일민주당 총재 시절 연설 장면. 2 1993년 2월 25일 국회 앞 광장에서 열린 제14대 김영삼 대통령 취임식.

와 자신을 정치인으로 키워준 부산을 뜻한다.

1974년 47세 나이에 야당인 신민당 총재가 된 김 전 대통령은 '선명야당'을 기치로 내세웠다. 야당을 이끌며 고난의 정치 인생을 겪어야 했던 그는 신군부의 서슬이 퍼렇던 1983년 5월 가택연금된 뒤 23일간 단식투쟁을 벌였다. 이는 민주화 투쟁의 기폭제가 됐고 민주화추진협의회를 결성해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1987년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다.

1990년에는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이끌었던 여당 민주정의당과 합당했다.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과 이른바 '3당 합당'을 한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은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 굴로 들어간다"고 설명했지만 '정치적 기회주의'로 비난받기도 했다. 3당은 민주자유당이라는 새로운 여당으로 거듭났고, 여당 후보로 출마한 그는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42%의 지지를 얻어 김대중, 정주영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대한민국 최초의 문민정부(文民政府)가 탄생한 순간이다.

금융실명제·역사 바로 세우기 등 경제·정치·군 개혁

1993년 2월 25일 대통령에 취임한 김 전 대통령은 '신한국 창조'라는 국정 지표를 바탕으로 정치, 경제, 군에 이르는 광범위한 개혁에 착수했다. 그는 "신한국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다. 눈물과 땀이 필요하다. 고통이 따른다. 우리 다 함께 고통을 분담하자"고 외쳤다.

취임 당일 청와대 앞길과 인왕산을 개방하고, 이틀 뒤엔 자신과 가족들의 재산 17억7822만 원을 공개했다. 이는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로 확대 추진됐다. 취임 직후 군 인사를 단행해 12·12사태를 주도한 군 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해체했다. 그해 8월에는 부패 척결을 위해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전격 발표했다. 이후 부동산 거래 실명제, 지방자치 선거 실시 등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며 취임 초기 90%가 넘는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1995년에는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명분 아래 5·18 특별법을 제정하고 전직 대통령 비자금 수사를 통해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웠다. 일제 조선총독부 청사를 해체하고 프랑스가 약탈해간 외규장각 도서 반환의 물꼬를 튼 것도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이었다.

'세계화'는 김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주요 정책 전략이었다. 1996년 12월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것이 대표적인 업적이다.

무수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정권 후반기 남긴 오점도 있었다. 1996년 12월 안기부법과 노동법을 7분 만에 통과시켰다가 대대적인 반정부 국민항쟁을 야기하기도 했다. 두 법은 민주주의와 노동자의 권익을 크게 저해하는 악법으로 평가받았다.





동아DB

1 1996년 4월 16일 당시 김 대통령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제주 신라호텔 정원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 1996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대도무문(大道無門)'이라고 쓴 신년 휘호를 보고 있다. '올바른 길에는 거칠 것이 없다'는 뜻으로 김 전 대통령의 좌우명이었다.

1997년 한보그룹 부도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씨가 한보 특혜융자의 배후인물로 국정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폭로됐다. 현철 씨는 구속됐고, 김 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김 전 대통령은 퇴임식에서 "영광의 시간은 짧았지만, 고통과 고뇌의 시간은 길었다"고 재임기간을 술회했다.

"문민정부를 출범시킨 대통령" 고인 마지막 당부는 '화합과 통합'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의 산증인이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에 외신도 관련 소식을 긴급히 타전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는 서거 소식을 속보로 전하면서 "김 전 대통령이 한국에서 문민정부 시대를 열었으며, 금융실명제와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등을 처음 도입하는 등 반부패 개혁을 주도했다"고 소개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군부독재 아래에서 민주화 운동을 이끌고 1993년 대통령에 당선돼 한국에서 문민정권을 부활시켰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김 전 대통령이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으면서도 정치적 경쟁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과 후보 단일화에 이르지 못해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패했으며, 비판도 받았다"며 대한민국 정치 역사를 상세하게 소개했다.

CNN은 "김 전 대통령이 온건 성향의 야당 지도자이자 민주화 운동의 대변자였다"고 평했으며, AFP통신도 고인이 문민정부를 출범시킨 대통령이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그의 당선으로 30년 이상 이어진 군부독재가 막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현직이었던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는 "민주화 운동을 하고 대통령이 된 분이어서 그 시대 한국에서 가장 필요하고 어울리는 대통령이었다"면서 "마음으로부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애도의 뜻을 전했다.

재임기간 김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 사이의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고 지역 안보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김 전 대통령과 협력했던 것이 자랑스럽다"고 국내 언론에 성명을 보냈다.

한편 김영삼 전 대통령은 생전인 2011년 전 재산의 사회 환원을 약속했다. 경남 거제도 땅 등 52억 원을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에 기부했고,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자택은 부인 손명순 여사 사후에 소유권을 센터에 기부하기로 했다. 문정수 전 부산시장은 "김 전 대통령은 평소 '정치인이 부를 가지는 것은 부덕한 일이다'라고 말했고 이를 몸소 실천한 분이었다"고 회고했다.

고인의 생전 좌우명은 대도무문(大道無門 : 올바른 길에는 거칠 것이 없다), 고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당부는 '통합과 화합'이다. G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국사편찬위 "안정적 집필 위해 명단은 비공개"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47명 확정

김진수 | 위클리 공감 기자

'올바른 역사교과서' 집필진 47명이 확정됐다.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김정배)는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공모 결과 및 중·고등학교별 집필진 구성과 관련해 11월 4~9일 이뤄진 공모에 응모한 인원이 교수·연구원 37명, 현장 교원 19명 등 총 56명으로, 그중 17명을 11월 20일 중·고등학교 교과서 집필진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11월 23일 밝혔다.

여기에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 등 원로 학자 30명을 추가로 선정해 총 47명의 집필진 구성을 마무리했으며, 이 가운데 중학교 '역사①', '역사②'(교사용 지도서 포함) 집필진은 26명, 고등학교 '한국사' 집필진은 21명이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시대별 대표 집필자로 학계에서 명망이 높은 원로를 초빙하고 공모와 초빙을 병행해 학계 중진 및 현장 교사를 선정했으며, 현대사를 좀 더 다양하고 깊이 있게 서술하기 위해 정치, 경제, 헌법 등 인접 학문의 전문가도 선발했다. 특히 기존의 검정교과서보다 많은 집필 인력과 학계의 명망 높은 전문가로 집필진을 구성함으로써 최신 연구 결과 등 역사적 통설을 충분히 검토·반영하고, 학생들의 흥미와 눈높이에 맞도록 교과서의 체제를 쉽고 재미있게 구성해 올바른 역사교과서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인원은 기존 검정교과서보다 두 배 이상 많다.

현행 검정교과서의 경우 중학교 '역사' 집필진은 최소 8명(교학사)부터 최다 20명(두산동아, 현 동아출판)으로 평균 12.4명, 고등학교 '한국사' 집필진은 최소 5명(리베르)에서 최다 9명(천재교육)으로 평균 7.4명이다(2013년 검정본). 2010년 검정 고교 '한국사'의 평균 집필진 수는 6.2명이었다.

이번 집필진 개개인의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사편찬위원회 관계자는 "집필진이 최대한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집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명단 공개 시기와 방법은 집필진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검정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의 경우 집필진 명단은 검정기관의 심의를 통과한 후 단위학교에서의 채택을 위한 전시본에서 최초로 공개됐다. 초등 국정도서의 경우도 교과서 집필이 끝난 후 현장 검토 과정에서 집필진이 공개됐다.

국사편찬위원회는 향후 대표 집필자를 중심으로 과목별, 시대별 집필진이 긴밀히 협조해 교과서 내용의 완성도를 높이고, 내용의 오류와 편향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집필진은 내년 11월까지 교과서 집필을 완료하며, 국사편찬위원회는 이후 외부 전문기관의 검토, 연구기관의 감수 등 절차를 거쳐 교과서 최종본을 만들어 2017년 3월 일선 학교에 배포한다. G

현행 검정 역사교과서별 집필진 수(2013년 검정본)

구분	출판사별 집필진 수								
중학교 (9종)	미래엔	비상	천재교육	천재교과서	두산동아 (현 동아출판)	금성	지학사	교학사	좋은책
	9	11	14	14	20	13	11	8	12

고등학교 (8종)	미래엔	비상	천재교육	두산동아 (현 동아출판)	금성	리베르	지학사	교학사
	8	8	9	7	8	5	8	6

자료 : 국사편찬위원회

청년희망아카데미 12월 특강

멘토가 전하는 생생한 현장 이야기

조영실 | 위클리 공감 기자

"작가의 삶은 빨리 시작하면 빨리 끝나고 늦게 시작하면 늦게 끝날 수 있어요. 글이 안 써진다고 포기하지 말고 쓸 수 있을 때까지 써보세요. 실력이 차오르는 때가 있으니 견디고 기다려보세요."

tvN 드라마 '미생', '몬스타' 등의 극본을 쓴 정윤정 작가는 글이 쉽게 써지지 않는다는 한 청년에게 이같이 조언했다. 지난 11월 19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청년희망아카데미에서 열린 문화창조 강좌에서다. 답변을 들은 청년은 "강연을 듣고 지금의 힘든 시간이 내 삶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꼭 글 쓰는 일을 해야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청년희망아카데미는 10월 19일 출범한 청년희망재단이 청년희망펀드를 활용해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희망펀드는 청년의 취업·창업 지원자금 마련을 위해 국민의 자발적 기부로 조성되는 펀드다. 청년희망아카데미의 특강은 대학생과 구직자를 대상으로 각 분야 전문가가 진행하는 토크 콘서트로 문화창조 강좌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 강좌,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 대비 준비강좌, 멘토 특강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간 은행권 취업 특강과 기업 분석 강좌를 희망하는 의견이 많아 12월에는 손태승 우리은행 부행장 등을 비롯해 대기업 임원들이 참여하는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최근 방송사 취업에 대한 높은 인기를 반영해 '1박2일', '삼시세끼' 등 예능을 제작한 나영석 PD의 멘토 특강도 마련했다.

청년희망아카데미는 특강과 더불어 온·오프라인 멘토링 서비스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오프라인 멘토링은 일대일(또는 일대다) 방식의 상담으로 청년희망아카데미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고, 온라인 멘토링은 이메일,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을 통해 질문을 하면 답변을 받아볼 수 있다.

청년희망아카데미 12월 특강은 청년희망재단 누리집(yhf.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강은 서울 종로구 종로 6(서린동) 광화문우체국 6층 청년희망재단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일대일 오프라인 멘토링은 전화(02-6731-2625~7)로 예약할 수 있다. G



청년희망아카데미 12월 강좌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대학 1, 2학년이 알아야 할 취업 준비** NCS 기반 채용 대비 전략을 세워라!(최선희 팀장)	2 **취업 특강** 은행이 요구하는 글로벌 인재(우리은행 손태승 부행장)	3 **대학 1, 2학년이 알아야 할 취업 준비** NCS 기반 채용 대비 전략을 세워라!(김태은 컨설턴트)	4	5
6	7 대설	8 **NCS 기반 채용 대비 준비강좌** NCS 기반의 취업 미리 알Go 내 일Job기(윤혜미 컨설턴트)	9 **해외 취업 특강** 해외 취업 & 다국적 기업의 문화 2탄(김조엘 조엘글로벌 컨설팅 대표)	10 **멘토 특강** '삼시세끼'처럼 진솔함으로 승부하라(나영석 PD)	11 **대학 1, 2학년이 알아야 할 취업 준비** NCS 기반 채용 대비 전략을 세워라!(김태은 컨설턴트)	12
13	14	15 **NCS 기반 채용 대비 준비강좌** NCS 기반의 취업 미리 알Go 내 일Job기(윤혜미 컨설턴트)	16	17 **취업 특강** 코오롱의 인재경영(코오롱인더스트리 백기훈 상무)	18 **취업 특강** CJ의 채용 이야기(CJ그룹 김태호 상무)	19
20	21	22 **대학 1, 2학년이 알아야 할 취업 준비** NCS 기반 채용 대비 전략을 세워라!(최선희 팀장)	23 **취업 특강** 취업無風(양문석 실장)	24	25 크리스마스	26
27	28	29 **대학 1, 2학년이 알아야 할 취업 준비** NCS로 On스펙 취업하기(최민자 컨설턴트)	30 **취업 특강** 취업! 역량과 가치로 디자인하라(신정수 건국대 평생교육원 교수)	31		

복지 사각지대 해소
국민 행복 나라로



"국민 행복은 우리 국정 운영의 최종 목표이고, 모든 부처가 힘을 합쳐서 노력해야만 이룰 수 있는 목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1월 22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했던 말입니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국민 행복'이라는 화두를 좌표 삼아 국민 생활을 편하게 바꿀 수 있는 국민 생활 서비스 정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그 결과 서민 생활과 관련된 정부 정책들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성과들을 일궈냈고, 올해만 해도 실생활 곳곳에서 가계 부담은 줄고, 사회안전망은 더 강화된 것을 실감합니다.

먼저, 살림에 보탬이 되는 정책들이 시행됐습니다. 뉴스테이, 행복주택, 주거 안정 월세대출 출시 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완화됐고, 서민금융 지원 확대방안 발표와 서민금융 신상품 3종 출시 등을 통해 '금융 부담'도 줄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의료비 부담

mcst.go.kr KOR 문화체육관광부



일러스트·허라미

이 줄고 복지의 사각지대도 해소됐습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을 늘리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동네에는 경기 활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교육비와 보육비 부담을 줄이고 한부모가정을 지원하며,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자유학기제 확대 등을 통해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 환경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청년들과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를 확대·지원하고, 창업 지원을 통해 서민들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위클리 공감〉은 총 5회에 걸쳐 이 같은 박근혜정부의 국민 생활 서비스 정책들이 국민의 실생활에서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를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호에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여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온 정책 노력들을 집중 소개합니다.

우선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의 보장을 강화했습니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을 축소했고,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해 노인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확대 도입하고, 맞춤형 급여 시행으로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초연금은 도입 1주년을 맞은 2015년 7월 기준으로 총 441만 명이 수령했고, 이로써 노인가구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득 분배가 개선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더불어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를 위해 상대적 빈곤과 개별 복지 욕구를 고려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급여'를 2015년 7월부터 시행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1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2013년 사회보장기본법 전면 개정으로 출범했으며, 이 법안은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2011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일명 '박근혜 복지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국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사회보장정책의 내실을 다져달라"며 "사회보장위원회는 복지정책의 중복과 누락을 조정·통합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긴 안목에서 사회보장체계를 점검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국민 행복'을 위해 지금까지 준비하고 추진해온 정책들이 전국 구석구석, 국민 모두에게 희망의 결실로 돌아갈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G

김민주 | 위클리 공감 기자

좌절 마세요, 희망을 찾을 수 있어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017년까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00곳으로 확대

뉴스1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여섯 번째)이 지난 11월 18일 서울시 강서구 탐라영재관에서 열린 '서울 강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소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여러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다양한 고용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김민주 | 위클리 공감 기자

충남 천안시에 살고 있는 주부 고모 씨. 그는 지난 22년 동안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왔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무릎 관절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관절이 모두 닳아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에는 오래도록 정들었던 세탁소 문을 닫고 말았다. 가족이 모두 경제적 능력이 없어 가장 역할을 해왔던 고 씨는 막막함을 느끼며 절망에 빠져 있었다.

고 씨는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수소문하던 중 우연히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했다. 고 씨를 만난 상담사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권유했고, 고 씨는 무료로 요양보호사 훈련을 받은 후 자격증을 취득했다. 또한 센터에서 무릎 관절이 좋지 않은 고 씨에게 복지 서비스를 연결해줘 무료로 수술까지 받을 수 있었다. 현재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그는 회복만 되면 곧바로 취업에 도전할 생각이다.

사업 실패 후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던 남편도 센터의 도움을 톡톡히 받았다. 우선 센터의 지원으로 알코올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에 다니게 됐고, 치료를 받은 이후 경비원으로 취업까지 했다. 게다가 아빠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 휴학까지 했던 딸은 센터 소개로 읍사무소에서 복지도우미로 일하게 됐다. 위기에 빠져 있던 온 가족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도움으로 다시 힘을 내서 삶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통한 취업자 21.7%로 증가

중앙·지방·민간 칸막이 없앤 대표적 정부3.0 사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국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복지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사실 그동안 복지 서비스가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어서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기 힘들다는 점이 계속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전국의 모든 고용센터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전환하고, 국민들이 한 곳만 방문해도 다양한 고용·복지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는 어떻게 하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까 이런 쪽으로 먼저 생각했는데 향후에는 도움이 되는 일자리를 어떻게 연결해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당당한 시민으로 자립해서 살 수 있는 국민이 될 때까지 생활 안정 등도 같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 제11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2015. 11. 11)

이런 의미에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정부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중앙·지방 간 칸막이를 없애고 중앙과 지방, 공공과 민간 간 협업을 일궈낸 대표적인 '정부3.0' 사례다. 즉 고용센터(고용노동부), 일자리센터(자치단체), 복지지원팀(보건복지부, 자치단체), 새일센터(여성가족부), 서민금융센터(금융위원회), 제대군인지원센터(국가보훈처) 등을 통합해 운영하는 협업 모델인 것이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2014년 1월 경기 남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2014년에 10곳이 문을 열었고, 2015년에는 11월 18일 개소한 서울 강서센터를 포함해 17곳이 새로 문을 열었다. 정부는 앞으로 13개 지역에 센터 개소를 앞두고 있으며, 오는 2017년까지 모든 고용센터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전환해 총 100곳으로 확대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센터를 얼마나 이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어떤 도움을 받았을까. 이에 대해 정부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 건수가 지난해보다 3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4년 9~12월 고용과 복지 서비스 연계 건수는 센터별 평균 191건에 불과했는데, 2015년 1~10월엔 연계 건수가 센터별로 평균 536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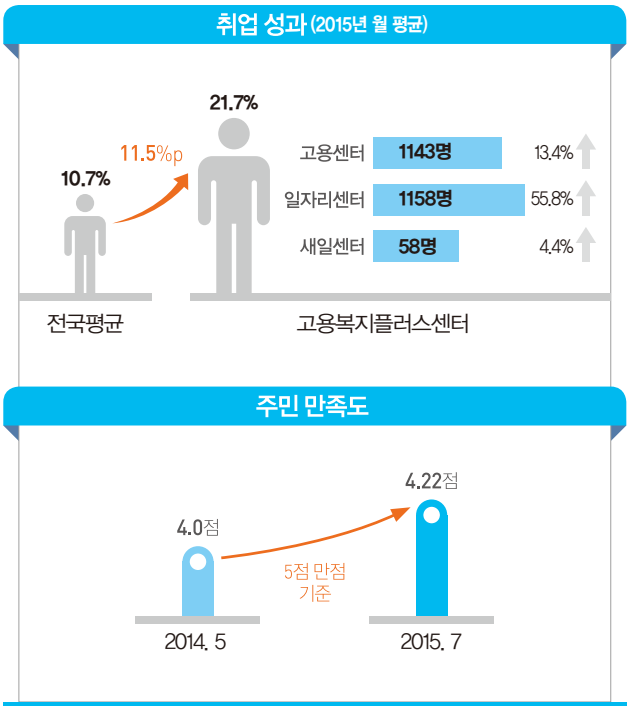
이처럼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는 이용자들의 만족도 역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 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에는 4.0(5점 만점)이었는데, 2014년 하반기에 4.14, 2015년 7월엔 4.22로 만족도가 높아졌다.

또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한 취업자 증가율 역시 21.7%로, 전국 평균 취업자 증가율이 10.7%인 것에 비하면 이 역시 눈에 띄는 성과다. 이는 센터가 통합되면서 각 기관의 일자리 정보 공유, 참여기관 간 프로그램 상호 개방, 서비스 연계를 통한 구직자의 애로사항 해결 등으로 기존에 비해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 지원이 쉬워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 모 상담원은 "기존의 고용센터로 운영될 때는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실업 인정만 받고 돌아갔다. 하지만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전환된 이후엔 이용자들이 옆 창구에 있는 자치단체 일자리센터나 새일센터 등에서 자연스럽게 취업 상담을 받게 됐고, 그 덕분에 취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처음 방문하면 초기 상담을 받게 된다. 이 상담을 통해 방문자가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지 정해지고, 이후 해당 상담 창구로 안내된다. 안내받은 창구에서 상담을 받다가도 상담사가 보기에 방문자에게 다른 기관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성과



자료 : 고용노동부

면 해당 기관의 창구로 연계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일자리뿐만 아니라 복지 문제 등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는 방문자에게는 참여기관들이 합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 건수 작년보다 3배 증가

방문자 맞춤형 여섯 가지 서비스

방문자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직자들을 위한 생계 안정 지원과 구인·구직자 취업 및 취약계층 지원, 고용 안정사업 등의 종합 고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업급여 지급 및 재취업 지원, 내일배움카드 등을 통한 직업훈련, 취업성공패키지, 고용 안정사업, 모성 보호사업 등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로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과 여성 인력을 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취업 상담 및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력단절여성 상담,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 연계 및 사후관리가 여기에 포함된다.

셋째, 구직자 취업 지원(면접기술 코칭, 취업 알선 등), 채용 행사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구직 기술 향상을 위한 지원, 동행면접 실시, 채용 행사 안내, 일자리 발굴 등의 서비스가 있다.

넷째, 중·장기 복무(5년 이상) 제대군인에게 진로 상담 등을 통해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도와준다. 취·창업 지원, 전직지원금, 직업교육훈련 및 바우처 지원, 워크숍 및 원거리 교육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섯째, 사회복지 서비스 상담 및 신청·접수, 공공·민간 복지 지원 연계 등 따뜻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 상담, 생애주기별 복지 서비스 안내, 공공·민간 복지 서비스 연계 통합 사례 관리 연계 등이 있다.

여섯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이나 영세 상공인과 저신용·저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신용 회복 지원 등의 금융 서비스도 제공한다. 서민층 저리자금 지원, 신용 회복 지원,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등이 해당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11일 열린 제11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정부3.0 우수사례인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 건수가 지난해보다 3배가량 증가할 정도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센터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고용·복지 서비스의 연계를 더 가까이, 더 깊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중앙정부, 중앙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면서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G



KOR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요 서비스

종합 고용 서비스 (고용센터)

실직자 생계 안정 지원, 구인·구직자 취업 및 취약계층 지원 고용 안정사업 등 종합 고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실업급여 지급 및 재취업 지원
-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 등)
- 취업성공패키지
- 고용 안정사업
- 모성 보호사업

경력단절여성 특화 서비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과 여성 인력을 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취업 상담 및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경력단절여성 상담
-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
- 직업교육훈련
- 인턴십, 취업 연계 및 사후관리

지역 맞춤 고용 서비스 (시·군·구 일자리센터)

구직자 취업 지원(면접기술 코칭, 취업 알선 등), 채용 행사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구직기술 향상 지원
- 동행면접 실시
- 채용 행사(구인·구직 만남의 날 등)
- 일자리 발굴

제대군인 특화 서비스 (제대군인 지원센터)

중장기 복무(5년 이상) 제대군인에게 진로 상담 등을 통해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도와드립니다.
- 취·창업 지원
- 전직지원금
- 직업교육훈련 및 바우처 지원
- 워크숍 및 원거리 교육

복지 상담 (복지지원팀)

사회복지 서비스 상담 및 신청·접수, 공공·민간 복지 자원 연계 등 따뜻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복지 종합 상담
- 생애주기별 복지 서비스 안내
- 공공·민간 복지 서비스 연계
- 통합 사례 관리, 연계

서민금융 상담 (서민금융 상담센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이나 영세 상공인, 저신용·저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신용 회복 지원 등의 금융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서민층 저리자금 지원
- 신용 회복 지원
-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자료 : 고용노동부

한부모가정의 가장, 황선희 씨

“자랑스러운 엄마, 열심히 사는 엄마로 거듭날 것”



경기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황선희(36) 씨는 열한 살, 열세 살 된 두 아이를 둔 한부모가정의 가장이다. 5년 전, 이혼하기 전까지는 집에서 살림만 하던 평범한 주부였다.

대학을 미처 졸업하지 못하고 결혼을 하는 바람에 특별한 기술이나 경력이 전무했던 황 씨는 이혼 후, 두 아이들과 단칸방에서부터 새 삶을 시작하느라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다.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꽤 오래 했고, 화장품 판매도 하러 다녔어요. 세 가족이 먹고살아야 했기 때문에 하루에 두 개씩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물론 주말에도 계속 일을 했어요.”

아이들은 학교 수업이 끝나면 학원을 다니는 등 늘 엄마 없는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렇게 5년 동안 앞만 보고 달리며 일을 했지만 삶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정식으로 취직할 곳이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다.

“아이들을 위해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쉬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주 5일 근무를 하는 회사를 정규직으로 다니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 능력을 키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인터넷으로 취업 지원에 대해 알아봤더니 남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곳인지 잘 몰라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반신반의했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센터를 알게 된 게 최고의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센터에서는 황 씨에게 다양한 정보와 혜택들을 알려줬다. 안정된 회사를 원하는 황 씨를 위해 전산회계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추천해줬고, 학원을 다니는 동안 가족의 생계를 위해 절차를 거쳐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 또한 이혼한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않고 있던 황 씨에게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정보까지 알려줬다.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 무척 친절했고, 자기 일처럼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또한 일자리 상담을 받은 이후 바로 옆에 있는 복지 담당 파트에서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유해줘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매달 57만 원을 지원받게 됐답니다.”

센터 방문을 통해 100만 원가량의 학원비가 드는 직업훈련과정을 무료로 수강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비까지 지원받게 된 황 씨. 사실 그 못지않게 아이들과 지인들이 더욱 기뻐했다.

“아이들은 제가 공부도 하고 학원도 다니는 것에 대해 무척 자랑스러워하고 좋아했어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잘 모르던 주변 지인들도 ‘한번 가봐야겠다’고 말하더라고요.”

특히 황 씨는 얼마 전 청와대에 초청돼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발표하기도 했다.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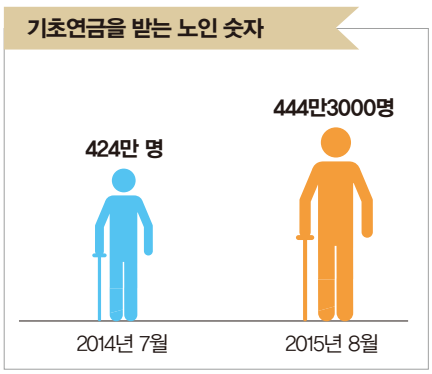
“11월 11일 사회보장위원회에 참석해 사례자로 발표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만찬이 끝나고 제가 마지막으로 사례 발표를 했죠. 모든 순서가 끝나고 대통령께서 나가시다가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저에게 오시더니 악수를 해주시면서 ‘열심히 사세요’라고 말해주고 가셨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될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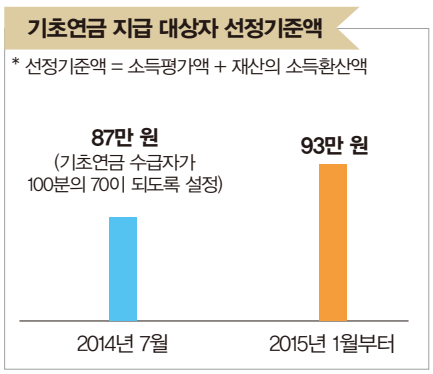
이혼 후 단칸방에서 아이들과 외롭고 힘들게 살아왔던 황 씨는 지금 이렇게 행복한 시간들이 그저 꿈만 같다.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모든 사람들이 센터를 통해 하루빨리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황 씨의 꿈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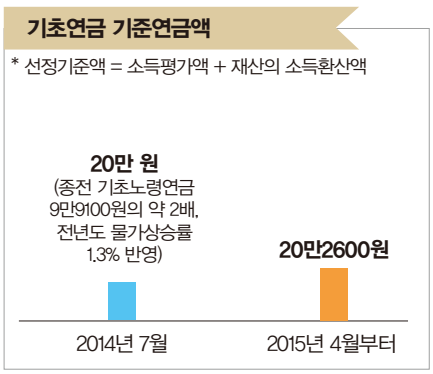
“일단 지금 직업훈련과정이 끝나면 좋은 곳에 취업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잘 자랐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이 저만 바라보면서 크는데 제가 바르게 잘 살아야 하잖아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더욱 자랑스러운 엄마,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는 엄마로 거듭나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게 저를 도와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G

“주름살 펴주는 효자입니다, 허허…”

기초연금 2014년 7월 이후 현재 444만3000명 수혜… 내년 1월 ‘수급 희망자 이력관리제’ 도입







자료 : 보건복지부

박경아 | 위클리 공감 기자

“기초연금을 받기 전에는 남편의 장애수당 13만5000원 외에 40대 후반에 얻은 늦둥이 남매가 대학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해 가끔 5만 원, 10만 원씩 보내주는 것이 수입의 전부였어요.”

경기 오산시의 한 임대아파트에 사는 윤모(81) 씨는 기초연금 덕분에 생활에 숨통이 트였다고 말했다. 요즘 남편의 장애수당에 32만4160원(부부 2인 합산)의 기초연금을 받아 매월 총 45만9160원의 수입이 정기적으로 생기면서 어려운 생활이 나아졌다며 기초연금 제도 도입을 반겼다.

부부 모두 젊은 시절 직장을 다니며 부지런히 살았지만, 남편이 사업한다며 퇴직금을 다 날린 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한다.

윤 씨는 “노인이 되기 전에는 국민연금의 중요성을 몰라 남편을 겨우 설득해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들어둔 덕에 그나마 장애연금을 받게 된 것”이라며 “요즘은 시청 복지과 담당직원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찾아와 필요한 것이 있는지 살뜰히 살피고 있는데, 얼마 전 김장김치를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줘 올해는 김장김치 걱정도 덜었다”며 피부에 와 닿는 복지 혜택에 고마워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올 8월까지 총 444만3000명의 노인들에게 매월 최대 20만2600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들 중 412만 명(92.7%)에게 전액(단독가구 및 부부 1인 수급 가구 20만2600원, 부부 2인 수급 가구 32만4160원)을 지급했다. 윤 씨 부부도 전액지급 대상이 됐다.

매월 최대 20만2600원의 기초연금 지급
OECD 중 빈곤율 최고인 한국 어르신에 큰 도움

기초연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빈곤율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경기 고양시의 이모(73) 씨는 고시텔에 혼자 살면서 월세가 몇

달째 밀릴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됐다. 몇 달 전 기초연금 수급 신청을 했던 이 씨는 지역 주민센터에서 뒤늦게 수급 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확인하고, 그동안 지급된 몇 달 치 기초연금으로 밀린 월세를 갚을 수 있었다.

대전 서구의 김모(78) 씨는 홀로 살며 폐지 수집으로 생계를 유지했으나 그 수입만으로는 지병인 심근경색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하지만 기초연금(20만 원)을 받게 되면서 매달 고정 생활비(전기·수도요금)를 충당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심근경색 약도 안정적으로 복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시행 2년째를 맞아 노인들의 실제 경제 상황과 생활수준을 고려해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조정해나가고 있다.

지난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을 '배우자가 없는 단독 가구' 기준으로 기초연금 도입 시의 87만 원보다 6만 원 오른 9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액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한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산출 시 각종 공제 범위를 확대해 현재 경제 상황이나 실제 거주 및 소비·지출 수준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우선 노인의 근로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근로 소득에서 원천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을 지난해의 48만 원에서 52만 원으로 확대했다. 또 재산 환산 시 기본재산 공제액을 올해부터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으로 확대 적용(이전에는 1억800만 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지급액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하고, 5년마다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기초연금 도입 시 기준연금액을 종전 기초노령연금(9만9100 원)보다 2배 높은 수준인 20만원으로 조정함으로써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이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지급액을 2배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하는 스케줄을 약 14년 앞당겼다.

시행 2년째 맞아 수급 기준 현실에 맞게 조정

또한 올해 4월부터는 전년도 물가상승률(1.3%)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20만2600원으로 상향해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 5년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수준, 국민연금 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유리하도록 지급액을 조정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초연금 수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연금이 필요한 노인이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해오던 만 65세 생일이 도래한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신청 안내를 올해부터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중앙에서 일괄 실시하고, 매년 각 지자체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106개소)와 협업해 거주불명등록 노인을 집중 발굴·안내하고 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 희망자 노인을 대상으로 '수급 희망자 이력관리제'를 운영한다. 이와 관련해 11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수급 희망자 이력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기초연금 수급 희망자 이력관리제'는 탈락 이후 5년간 매년 이력조사를 시행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해주는 제도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핵심 국정과제인 기초연금을 한층 내실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기초연금이 필요한 노인이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G

“눈높이 맞춘 도움 흐뭇해요, 고마워요”

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 급여 7월 개편 이후 신규 신청자 105만 명

김민주 | 위클리 공감 기자

경기도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중증장애가 있는 40대 주부다. 김 씨는 중증장애로 경제활동이나 자녀 양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다, 자녀 셋은 학생이거나 미취학 아동이다. 특히 자녀 중 한 명은 간질을 앓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지적장애 2급의 중증장애인에다 선천성 심장병까지 앓고 있다. 남편의 사업마저 부도가 난 뒤에는 경제 상황이 극도로 악화됐다. 현재는 다섯 식구가 보증금 500만 원에 30만 원짜리 월세집에 살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려워도 남편의 월 소득이 200만 원으로 최저생계비(5인 가구 월 198만 원)를 초과해 수급자로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올해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고 난 뒤 5인 가구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선정 기준이 각각 월 소득 215만 원, 250만 원으로 확대되면서 수급자로 선정됐다. 김 씨 가족은 주거비와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면서 생활비 부담을 덜게 됐다.

생활이 어려워지는 등 삶의 위기가 닥치거나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될 때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해보는 건 어떨까. 당신이 전혀 모르고 있던 혜택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7월 더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로 바꿨다. 맞춤형 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 여건에 맞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에 대해 급여별로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이다.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왔다. 또한 가구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최저생계비를 조금만 초과해도 모든 급여가 일시에 중단돼 수급자의 생계가 곤란해지거나, 수급자가 일자리를 통한 자립을 기피하는 현상 등이 나타났다. 하지만 맞춤형 급여로 개편함으로써 소득이 증가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해준다.

먼저, 수급자의 급여별 선정 기준이 다양한 계층으로 세분화돼 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해도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부양 의무자의 소득 기준’도 크게 완화됐다. 맞춤형 급여는 기존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급여별로 선정 기준을 달리 정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중위소득은 총가구 중 중간 순위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2015년 4인 가구 월 422만 원).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완화 수급자 크게 늘어날 듯

맞춤형 급여는 지난 7월 개편을 앞두고 6월부터 사전 신청기간을 운영해왔다. 정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수급 가능자들에게 개별 안

생계급여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합니다.

예시: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 기준인 118만2309원에서 60만 원을 뺀 58만2309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낮은 본인 부담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1차 (의원)	2차 (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 서비스에 한함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생계·의료급여 관련 상세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주거급여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 비용(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 (단위 : 만 원)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1인 가구	19	17	14	13
2인 가구	22	19	15	14
3인 가구	26	23	18	17
4인 가구	30	27	21	19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택 개량 지원 내용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350만 원	650만 원	950만 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주거급여 관련 상세 문의는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교육급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지원 내용

지급 대상	급여 항목	지급 금액	지급 방법
초·중학생	부교재비	1명당 3만8700원	연 1회 지급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1명당 5만2600원	1, 2학기 분할 지급
고등학생	교과서대	1명당 12만9500원	연 1회 지급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분기별(3, 6, 9, 12월) 지급
	입학금		1학년 재1분기에 신청 시 전액 지급

교육급여 관련 상세 문의는 교육급여콜센터 **1544-9654**

내를 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를 위해 고용센터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단체 등을 통해 '맞춤형 급여'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여왔고, 그 결과 지난 6월 이후 맞춤형 급여 신규 신청자가 105만 명(11월 4일 기준)에 달했다. 게다가 맞춤형 급여를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들에게는 차상위계층 보장, 긴급복지 지원 등 다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주고 있다. 이에 정부는 맞춤형 급여제도가 개편된 이후 혜택을 받는 수급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편 사망 후 건강 악화로 생계 위협받던 박영옥 씨

맞춤형 급여로 삶에 희망 생겨

박영옥(가명) 씨는 남편도 자식도 없이 홀로 심신을 추스르며 살고 있는 올해 75세 홀몸노인이다. 유년기에는 넉넉한 환경에서 자라 남부러울 것이 없었고, 결혼 후에도 큰 굴곡 없이 평범한 전업주부로 지냈다.

하지만 10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한 후 인생에 최대 고비가 닥쳤다. 큰아들은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얼마 전 세상을 떠났고, 딸은 사위의 신장투석 뒷바라지를 하느라 친정엄마를 도와줄 형편이 못 됐다. 게다가 막내아들은 신용불량자로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박 씨는 생활고에 시달렸고 어쩔 수 없이 파출부 일을 시작하게 됐다. 하지만 남편이 떠나고 마음이 헛헛했던 탓인지 결국 건강에도 이상이 생기고 말았다. 하지정맥으로 생긴 다리 통증에 당뇨, 협심증, 요통, 골다공증, 백내장 등 만성질환을 앓게 된 것.

결국 박 씨는 건강이 악화되면서 더는 파출부 일을 하지 못하게 됐다. 그렇다고 마냥 집에서 누워만 있을 수는 없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복지관을 찾아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서 생활비를 몇 푼이라도 벌어야 했다.

그렇게 힘겨운 삶이 계속되던 어느 날 복지관을 통해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됐다. 정부에서 '맞춤형 급여'를 개편함에 따라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박 씨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쁜 마음에 자세히 알아본 결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약 43만 원에 기초생활급여 약 14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음을 알게 됐다. 또한 박 씨는 의료급여 1종(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대상자로 병원 등을 이용할 때 1000~2000원 정도의 비용만 부담하면 됐다.

박 씨는 "이젠 병원에 갈 때마다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까 마음 졸이지 않아도 돼 무척 기쁘다"며 "앞으로 좀 더 힘을 내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삶의 의지를 다졌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장은섭 사무관은 "맞춤형 급여 개편을 통해 저소득계층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획일적인 제도의 틀에 맞추던 문제점이 개선됐다"고 평가하며 "특히 엄격한 부양 의무자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돼 도움이 필요한 더 많은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G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내 삶에도 희망이 자라고 있어요”

법정 차상위 기준 상향 의료비 본인 부담 경감 등 다양한 지원



셔터스톡

이혜민 | 위클리 공감 기자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Ⅱ’를 지난해 7월부터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했다. 이 제도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도 포함됐다. 그 밖에도 박근혜정부는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 본인 부담 경감, 장애인연금 확대, 장애아동수당 지급, 자활급여 마련 등을 추진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있다.

희망키움통장Ⅱ 지난해 7월 도입된 희망키움통장Ⅱ는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 중 근로·사업소득이 70%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매월 본인이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로부터 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 명목으로 매월 10만 원씩 지원받게 된다. 적립기간은 3년으로, 3년 동안 가입하고 재무교육과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적립금 720만 원(본인 적립금 360만 원+정부지원금 360만 원)을 지급받는다. 단 정부지원금은 주택 구입 및 임대, 본인과 자녀의 교육훈련, 사업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만 사용해야 된다. 이 통장은 지난해 약 1만 가구가 가입했다.

가입을 희망하는 차상위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신청 가구의 적립금 활용계획 등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자를 선정한다.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의료급여 수급자였던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와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을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 관리한다. 대상자가 의료급여 수급자 수준에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 차액과 건강보험료에 대해 국고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자체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친 대상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 최종 확인해 결정한다. 요양기관은 경감한 차액을 포함하여 공단에 청구해 지급받으며, 공단은 요양기관에 지급한 본인부담금 차액을 국고에 요청해 정산하게 된다.

2014년 12월 현재 차상위계층에 속한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3만1906명(9.5%), 만성질환자 12만7482명(38%), 18세 미만 아동 17만6444명(52.5%) 등 총 33만5832명이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다.

차상위 장애인연금 지난해 7월부터 장애인연금(기초급여+부가급여)의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고 기초급여액이 인상됐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8세 이상 중증장애인(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 중 63%에서 70%(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87만 원 이하, 부부가구 기준 139만2000원 이하)로 확대되며,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기초급여액은 월 9만9100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됐다(올해 4월부터 20만2600원).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받는 총 급여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12만~18만 원에서 22만~28만 원까지 올랐다. 이로써 18~64세 이하 차상위계층과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은 기초급여와 별도로 부가급여 7만 원을 받게 됐다. 이 제도의 수혜자는 2014년 12월 현재 5만1855명(5만1183가구)이다.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 차상위 자활급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장애아동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8세 미만 장애인에게 지급된다. 장애아동수당은 차상위계층의 경우 중증(1급, 2급, 3급 중복) 15만 원, 경증(3급~6급) 10만 원을 매월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중증 20만 원, 경증 10만 원을 받는다. 2014년 12월 현재 10만7121명(10만3233가구)이 수혜자다.

차상위 자활급여는 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에 따라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자로서 근로 능력이 있는 미취업자에게 지급된다. 차상위계층은 자활을 위한 근로 기회, 기능 습득, 취업 알선 등을 제공받는다. 시장진입형은 3만8770원(일당), 사회서비스형은 3만5270원(일당)을 받는다. 2014년 12월 현재 1만8912명(1만8342가구)이 이용하고 있다. G

박춘자 행복한 밥상 대표

“막막할 때 내민 사랑의 손 이제 갚으며 살 겁니다”



해남자역자활단체

“남편이 목공소를 했는데 사람이 너무 좋아서 여러 곳에 보증을 서줬어요. 보증을 부탁한 사람들이 야반도주를 하면서 저희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남편은 술만 마셨죠. 평소 간이 나빴던 남편은 결국 쓰러졌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저세상으로 갔습니다.”

8년 전 당시 47세의 박춘자 씨는 살길이 막막해졌지만 그렇다고 주저앉을 수도 없었다. 첫째는 군복무 중이고 둘째는 대학생, 막내딸은 겨우 초등학생이라 생활비와 학비 마련에 애를 먹었다.

“남편의 사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가서 ‘어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며 울고 있으니까 한 직원이 해남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를 알려줘서 신청했어요. 처음에 간 곳은 재활용 사업단이었는데, 한 달에 70만~8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새벽 근무도 했어요. 이후 이곳 분위기가 편치 않아 간병 일을 했는데 늦게 끝나 애들 볼 시간이 없었죠.”

다행히 박 씨는 반찬사업단으로 자리를 옮겼다. 간병을 하려고 도시락을 싸와 동료들과 먹으면서 ‘박 씨의 손맛’이 주목을 받은 덕이다. 이후 박 씨는 자활센터의 제안으로 반찬사업단에 소속돼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국배달 사업’을 맡아, 노인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메뉴도 열심히 개발했다. 그새 입소문이 나서 행사 주문 등 유료 반찬 배달도 늘어났다.

“새벽 5시에 출근해 저녁 7시까지 일하면서도 힘든 줄 몰랐어요. 사람들이 저더러 ‘일에 미쳤다’, ‘일하고 결혼했다’고 할 정도로 일만 했죠. 막내는 전화로 깨우면 로봇처럼 일어나서 학교에 갔는데도, 속이 깊은 아이라 엄마를 더 걱정해줬어요.”

어느덧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지 5년이 지났고, 자활근로사업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는 음식 솜씨가 알려지면서 스카우트 제의도 받았다. 하지만 박 씨는 이런 제의를 거절하고 자활근로사업에 함께했던 사람들 2명과 힘을 합쳐 2011년 8월 ‘행복한 밥상’이라는 자활공동체를 만들었다. 행복한 밥상은 창업 3년 만에 2호점을 여는 등 직원 6명, 현금자산 1억 원이 넘는 규모로 성장했고, 지난해 전국자활기업대회에서 전국자활협회장상까지 받았다.

박 씨는 “함께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매일같이 노인 100명을 위한 무료 도시락을 만드는 것도 그래서다. “정부 도움을 받아 이 일을 시작했고, 창업 당시에도 정부 지원이 큰 힘이 됐습니다. 이제는 받은 사랑을 갚으면서 살겠습니다(웃음).” G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제 눈이 되어주고 제 발이 되어주고”

장애인연금 확대 월 최대 28만2600원 지원… 수급률 지속 확대키로

장애인연금(기초급여+부가급여)

※ 만 65세 도달 시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전환

구분	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18~64세	65세 이상	18~64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28만2600원	20만2600원	0	8만 원	28만2600원
차상위계층	7만~27만2600원	20만2600원	0	7만 원	7만 원
차상위초과계층	4만~22만2600원	20만2600원	0	2만 원	4만 원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상반기	2014년 하반기	2015년
단독가구	50만 원	53만 원	55만1000원	58만 원	68만 원	87만 원	93만 원
부부가구	80만 원	84만8000원	88만1600원	92만8000원	108만8000원	139만2000원	148만8000원
대상자 범위	58%	58%	58%	63%	63%	70%	70%

자료 : 보건복지부

이혜민 | 위클리 공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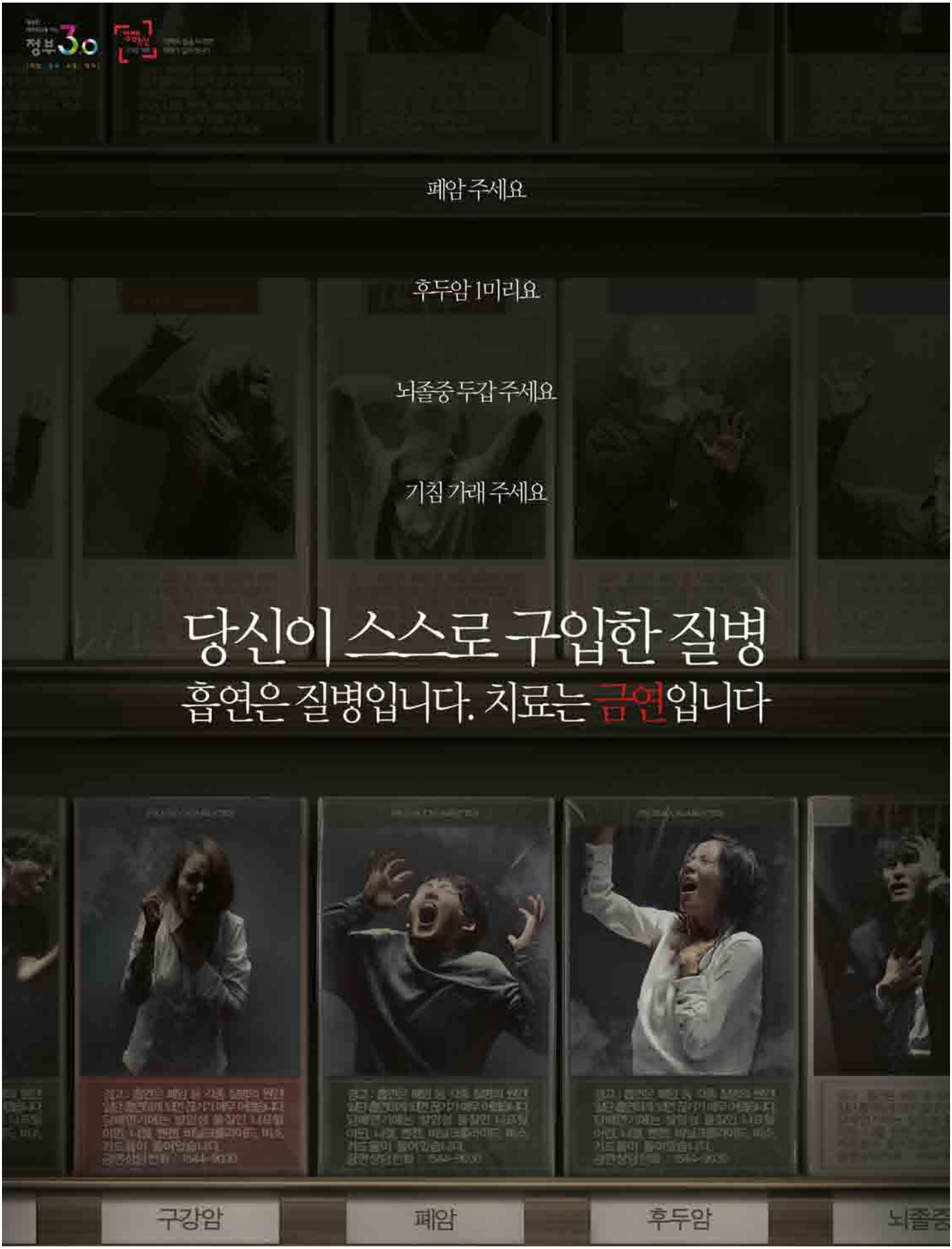
경남 창원시에 사는 D(60) 씨는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려왔다. 그런데 갑작스레 병을 앓은 뒤 2006년 장애등급(호흡기 1급 장애) 판정을 받은 D 씨는 2010년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장애인연금을 신청했으나 기본재산액 공제 한도보다 재산이 더 많다는 이유로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돼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대상자로 인정받았다. 이제 D 씨는 ‘기초급여’ 20만2000원과 ‘부가급여’ 7만 원 등 총 27만2000원의 장애인연금을 매달 받게 되면서 치료비 부담을 덜게 됐다.

장애인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다. 정부는 2010년 7월 장애인연금법을 제정해 근로능력 감소로 인한 소득 상실과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 둘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 이상의 장애가 3급인 경우) 가운데 소득 하위 70%(매월 소득 기준으로 단독가구 93만 원, 부부가구 148만8000원) 이하가 그 대상이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이뤄진 장애인연금은 매월 최대 28만26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즉 기초급여(장애로 인한 소득 상실 비용 보전)로 매월 20만2600원, 연령별·소득별 부가급여(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로 2만~28만2600원을 받게 된다(표 참조).

박근혜정부는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를 국정과제로 삼고 그간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2013년부터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2만 원 올리고, 2014년 7월 장애인연금법을 개정해 장애인연금 대상을 확대하고 기초급여를 인상했다. 즉 대상을 중증장애인의 소득 하위 63%에서 70%로 확대하고,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를 20만 원(종전 9만9100원)으로 2배 인상했다. 더 나아가 올 4월부터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기초급여를 20만2600원으로 조정했다. 앞으로 정부는 2017년까지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3만 원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약 35만8000명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신규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도 빠짐없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2014년 7월 60.3%, 2014년 12월 64.5%, 2015년 10월 67.2%로 늘어난 상태다. G


정부3.0
폐암 주세요
후두암 1미리요
뇌졸중 두갑 주세요
기침 가래 주세요
당신이 스스로 구입한 질병
흡연은 질병입니다. 치료는 금연입니다
구강암
폐암
후두암
뇌졸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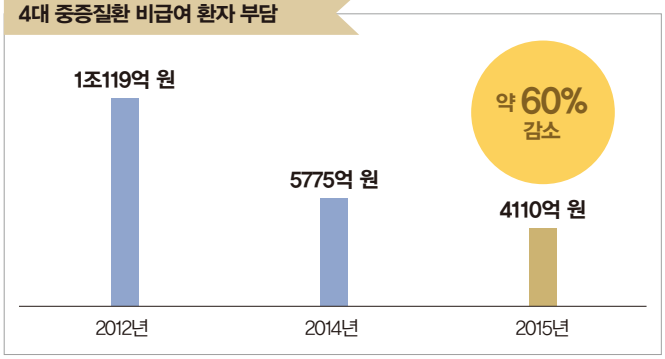
“아파도 기둥 뿌리 뽑지 않아도 되었어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과도한 의료비 부담 줄여 삶의 질 개선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효과

4대 중증질환 비급여 환자 부담



4대 중증질환 환자 부담 경감 사례

약제	특발성 폐섬유화증 치료제 피레스파 약값 **(연) 1260만 원 → 126만 원**
시술	청성 뇌간이식술 환자 부담액 **2000만 원 → 200만 원**
검사	급성뇌경색 환자 MRI 검사 부담액 **31만 원 → 3만1000원**

자료 : 보건복지부

김진수 | 위클리 공감 기자

A(42) 씨는 10년 전 왼쪽 가슴에 유방암이 발병해 유방 전체를 도려내는 유방전절제술을 받았다. 이후 허리와 골반 등의 추간판(디스크) 질환으로 정형외과 진단을 받은 결과 신체 좌우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게 원인일 수 있다며 유방재건술을 권유받고 올해 8월 유방재건술을 시행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이 나오기 이전이라면 A 씨는 800만~1400만 원의 비용을 부담했겠지만, 올해 6월부터 유방재건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약 240만 원만 부담해 의료비 부담을 크게 덜었다.

B(77) 씨는 대동맥판협착증 환자로 심장수술이 필요했으나, 고령이어서 전신마취와 개심술(開心術 : 피가 흐르지 못하게 막고 심장의 벽을 열어서 하는 수술)의 위험 부담이 높아 수술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경피적 대동맥판삽입술(중증 대동맥판협착증 환자에게 기존 대동맥판막을 확장시킨 후 인공 대동맥판막을 삽입하는 시술법)에 올해 6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9월 이 수술을 받았다. B 씨의 진료비는 약 250만 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이전의 비용 2800만 원과는 큰 차이다.

2001년 간암으로 우측 간절제술을 받은 C(69) 씨는 2003년 1차 간암 재발로 간동맥색전술을 받아 효과적으로 치료했다. 하지만 올해 5월 2차로 재발해 간동맥색전술을 시행했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자 9월 양성자치료를 시행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이전이라면 C 씨는 진료비로 1700만 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올해 9월부터 간암의 양성자 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약 330만 원만 부담했다.

C 씨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의 혜택을 직접 받으면서 서민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었음을 알게 됐고, 암에 걸리더라도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앞으로도 환자들의 짐을 덜어주고 환자와 가족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나갈 것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암, 심·뇌혈관 및 희귀난치성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비 부담과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추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2015. 1. 12)



국립암센터

정부는 올해 10월 현재까지 고비용 치료법, 고가 약제 등 111개 항목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완료했다. 사진은 암세포에만 방사선이 들어가도록 해 정상 조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양성자 치료기.

우리 국민의 총 의료비 중 가계지출 비중은 2012년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헬스 데이터(Health Data)' 기준 32.1%로 평균 19.5%인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또한 2011년 빈곤실태조사에 따르면 54만 가구가 의료비로 말미암은 재산 처분, 전세 축소, 사채 이용 경험이 있으며, 소득의 1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한 가구가 16%, 30% 이상을 지출한 가구도 전체 가구 중 4%를 차지했다.

이처럼 과도한 의료비 부담이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 중 하나로 부각되면서 정부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다만 건강보험의 한정된 재원과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우선순위에 따른 단계적 보장 강화가 필요했고, 진료비가 비싼 암과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이른바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왔다.

4대 중증질환은 2011년 기준으로 건강보험에서 연간 500만 원 이상의 고액 진료비가 발생한 상위 50개 질환 중 60% 이상을 차지할 만큼 환자들의 부담이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을 국정과제로 지정하고, 2013년 6월부터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계획'을 수립했다. 아울러 이 계획을 통해 의학적 타당성과 사회적 요구도, 재정적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기본 방향을 마련했다.

국민 의료비 국제 비교 (OECD 헬스 데이터, 2012. 10)

구분	한국	OECD	독일	프랑스	일본 (2009)	미국
GDP 대비 국민 의료비(%)	7.1	9.5	11.6	11.6	9.5	17.6
국민 의료비 중 가계지출 비율(%)	32.1	19.5	13.2	7.3	16.0	11.8

2016년까지 단계별 건강보험 적용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계획' 수립

첫째,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존 의료에 비해 치료 효과가 크게 개선되거나 사회적 수요가 큰 비급여 의료를 모두 급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 급여를 적용하는 항목도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보험 적용 기준을 충분히 확대하기로 했다.

2015년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급여 신규 적용 및 확대 현황

구분	질병 진단 검사	수술 및 처치	약 제
신규 보험 적용	8항목	20항목	16항목
	예시 : 뇌자기파 지도화, 이식형 홀터	예시 : 청성 뇌간이식술,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 암환자 교육 상담료 등	예시 : 특발성 폐섬유화증 치료제, 폐암치료제 등
급여 대상자 확대	4항목	11항목	52항목
	예시 : 급성뇌경색 MRI 검사, C형 간염 항체 검사	예시 : 양성자 치료, 세기 변조 방사선 치료 등	예시 : 신항응고제, 대장암치료제 등
합계	12항목	31항목	68항목

자료 : 보건복지부

둘째,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사회적 수요가 있는 의료는 비필수적 의료임을 감안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되 본인부담률을 50%, 80%로 통상의 급여보다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를 3년마다 재평가해 비용 효과성이 향상되거나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는 필수 급여로 전환하고 본인 부담을 조정하기로 했다.

셋째, 미용과 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의료는 비급여를 유지하기로 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누적 적립금 등을 활용해 최대한 조달하고, 건강보험료는 물가 수준과 수가 인상 등을 고려해 통상적 수준으로 관리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그 결과 올해 10월 현재 고비용 치료법, 고가 약제 등 111개 항목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완료했다.

올해 10월까지 중증질환자 비급여 의료비 6009억 원 경감

먼저 뇌자기파 지도화 검사와 C형 간염 항체 검사 등 고비용 검사 12개 항목에 대해 보장성을 강화했다. 삶의 질 향상 효과가 큰 유방재건술, 양성자·세기 변조 등 고가의 방사선 치료, 암환자 교육 상담료 등 수술 및 처치 31개 항목도 새롭게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급여 범위를 확대했다. 고가 항암제(폐암·대장암 등),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등 급여 요구가 큰 고가 약제 68개 항목도 보장성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2013년의 25개 항목과 2014년의 100개 항목을 포함해 총 236개 항목의 보장성을 확대했고, 201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중증질환자 비급여 의료비 6009억 원을 경감했다.

또한 수술 없이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중증 뇌출혈 환자와 혈전용해제 투여 환자 등 중증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 환자를 산정특례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본인부담금을 줄이도록 해 올해 2월부터 약 3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다.

이와 더불어 선천성 심기형 12종(완전 대혈관 전위, 수정 대혈관 전위, 방실중격 결손, 활로4징, 대동맥폐동맥 개창, 삼천판 폐쇄, 엡스타인 기형, 대동맥판막 하부 협착, 선천 완전 방실차단, 대동맥 축착, 대동맥 폐쇄, 대동맥판막 상부 협착)을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추가해 올해 12월부터 시행한다. 유병률이 적은 극희귀질환, 병명을 확정하지 못한 상세불명 희귀질환도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11월 기준을 변경함으로써 2016년 3월부터 연간 최대 1만~1만8000명의 극희귀질환자와 상세불명 희귀질환자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한 올해 12월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유전자 검사 134개 항목에 대해 추가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해 2016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6년에도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높은 고가 약제와 고비용 진단 검사 및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G

“부모님 치아 치료비 목돈 안 들어요”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만 70세 이상으로… 의료비 부담 60% 감소



김진수 | 위클리 공감 기자

위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던 73세 김모 할머니는 며칠 전 치과의원에서 금속상 완전틀니 시술을 받았다. 올해 6월까지만 해도 금속상 완전틀니는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이라 환자 본인이 145만 원의 수가를 부담해야 했지만, 7월부터는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되면서 김 할머니는 수가 약 122만 원 중 본인부담률 50%인 약 61만 원만 부담했다. 이로써 약 84만 원의 진료비를 아꼈으며(약 58% 감소) 활력 있는 노후생활도 즐길 수 있게 됐다.

위턱에 어금니가 2개 없고, 아래턱엔 치아가 하나도 없던 72세 신모 할아버지는 얼마 전 치과의원에서 위턱에 분리형 식립 재료(고정체, 지대주)와 PFM(금속 보철물에 도자기 재료를 입힌 것) 크라운 보철로 치과 임플란트 2개를 시술받았다. 아래턱엔 레진상 완전틀니를 했다. 진료비는 치과 임플란트 2개 시술에 따른 행위수가 약 207만 원과 분리형 식립 재료비 약 36만 원, 레진상 완전틀니 수가 약 105만 원으로 총 348만 원. 올해 6월 이전이라면 모두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이어서 치과 임플란트 2개에 300만 원, 레진상 완전틀니 1악(틀니의 단위로, 위턱이나 아래턱 어느 한쪽의 완전틀니를 1악이라고 함. 위아래 모두를 하면 2악임)에 135만 원 등 총 435만 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7월부터는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돼 신 할아버지는 본인부담률 50%인 약 174만 원만 부담했다. 덕분에 약 261만 원의 진료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약 60% 감소).

올해 7월 1일부터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연령이 기존의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어르신들의 치과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었다. 또한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 외에 금속상 완전틀니(입천장과 닿는 부분 등이 금속 구조물로 된 완전틀니로, 금속 구조물이 코발트 크롬 금속류인 경우에 급여 적용. 이 외에 금, 티타늄 등은 비급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어르신들이 전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자신의 구강 상태에 따라 틀니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틀니(1악당) 또는 치과 임플란트(1개당)를 시술받을 경우 비급여여서 환자 본인이 140만~200만 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대상 연령 확대로 53만~65만 원만 부담(본인부담률 50% 적용)하면 돼 의료비 부담이 약 60% 감소했다(2015년 의원급 기준).

이에 따라 올 한 해 10만4000~11만9000명의 어르신이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되고, 831억~975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이 수치는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필요 대상자인 어르신들이 한 해에 모두 이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5년으로 배분해 추정한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 건강 보호와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임플란트 시술에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2014년 만 75세→2015년 70세→2016년 65세)하고, 틀니 시술 보험 급여 적용도 내년 7월엔 만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늘릴 예정이다.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시술 대상인 어르신들은 치과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상자로 등록한 뒤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G

*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129번),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번)

틀니 건강보험 급여 적용 대상

구분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부분틀니
대상자	만 75세 이상 → 만 70세 이상(2015. 7. 1부터)	
최초 적용 시기	2012. 7. 1	2013. 7. 1
본인부담률	50%(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경우는 20~30%로 적용함),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적용 대상

구분	내용
대상자	만 75세 이상으로 치아가 일부 있는 자(부분 무치악) → 만 70세 이상으로 치아가 일부 있는 자(치아가 하나도 없는 자는 제외, 2015. 7. 1부터)
최초 적용 시기	2014. 7. 1
본인부담률	50%, 본인 부담 상한제 제외

자료 : 보건복지부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부담 많이 줄었죠”

3대 비급여제도 개선 단계적 비용 축소, 건강보험 수가 적용 확대



김진수 | 위클리 공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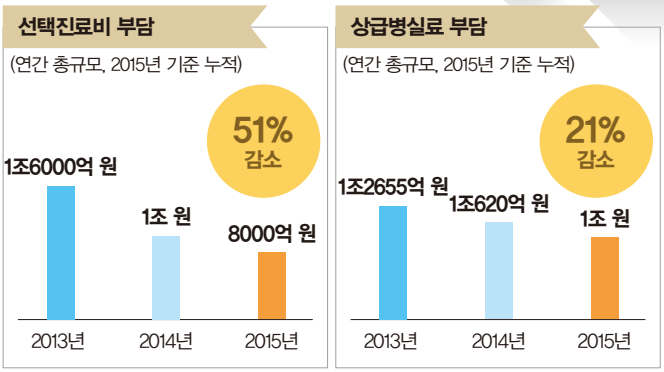
지난해 1월 뇌경색증으로 A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61세 남성 B 씨는 11일 동안 입원했다. 총 682만 원의 진료비 중 B 씨가 낸 본인부담금은 372만 원. 여기엔 건강보험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 77만 원 외에 선택진료비 115만 원, 9일간의 2인실 이용 비용(상급병실료) 180만 원이 포함됐다. B 씨가 직접 선택진료와 2인실 입원을 요구한 건 아니지만 병원 측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만일 B 씨가 현재 같은 병으로 입원 치료를 한다면 어떨까. 올해 9월부터 선택진료 의사 비율 및 상급병실료가 축소 개편됨에 따라 B 씨는 기존의 372만 원보다 275만 원(73.8%)이 줄어든 97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B 씨를 수술하는 의사가 일반의사로 분류되면 선택진료비를 부담하지 않아 115만 원이 줄어들고, 9일간 입원했던 2인실도 일반병상으로 전환돼 상급병실료 180만 원 부담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중환자실 수가가 인상되고 수술 후 회복감시료가 신설됨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20만 원 늘어나긴 하지만, 제도 개선 이전과 비교하면 의료비 부담이 현격히 줄어드는 셈이다.

파킨슨병과 당뇨 합병증을 앓는 C(55) 씨의 병이 깊어지면서 가족의 간병은 한계에 다다랐다. 하지만 C 씨가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에 입원하면서 환자 상태 전반에 대해 담당 간호사의 세심한 간호를 받게 됐다.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시스템에 의한 전문 간호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C 씨는 욕창이 호전되고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C 씨 가족은 이전보다 간병 부담을 덜게 된 것은 물론 그동안 당연시했던 가족 간병이 환자 간호 측면에서 되레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됐다.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더불어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환자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제도 개선을 병행해 오고 있다. 이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좀 더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3대 비급여제도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선택진료비는 병원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는 경우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추가 비용으로, 금전적 부담이 큰 데다 병원 측의 선택의사 지정에 따라 원치 않는 선택진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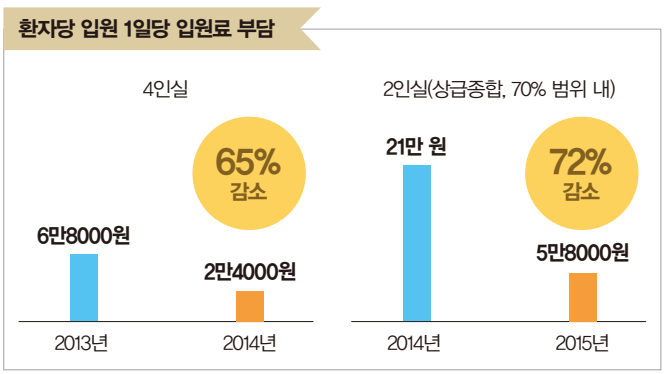
상급병실료는 환자가 1~5인실을 이용할 때 6인실 비용에 비해 추가로 전액 부담해야 하는 병실 차액으로 1인실의 경우 하루 평균 30만 원을 넘는 등 부담이 크고, 건강보험이 적용돼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반병상을 이용하고 싶어도 병상의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상급병실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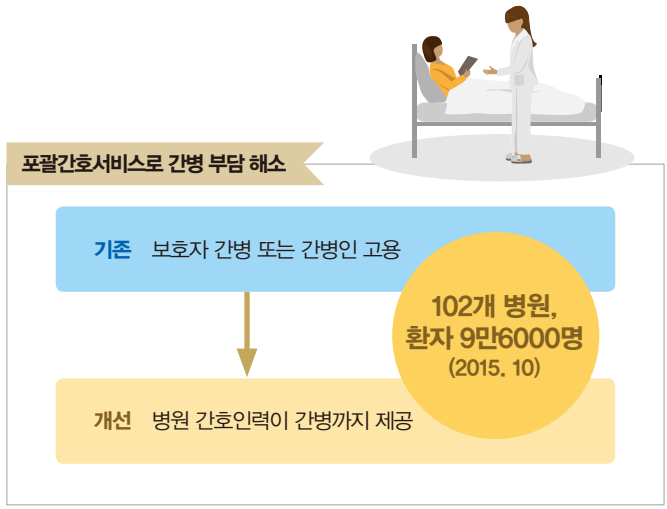
포괄간호서비스로 간병 부담도 완화
선택진료비 부과 상한금액도 크게 줄여

간병비 또한 문제였다. 그동안 간병에 대해선 제도적으로 지원되지 않아 환자 보호자가 생업을 포기하며 직접 간병하거나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에 정부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선택진료 부과 비용 및 선택의사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축소 비용만큼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확대하고,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건강보험 적용 병상을 확대하고 입원료 수가를 개편하는 한편,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도 병원 간호인력이 간병(기본 간호)을 포함한 입원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개발·확산하는 3대 비급여제도 개선 단계별 추진 기본계획을 세웠다.

기본계획에 따라 정부는 2014년부터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자료 : 보건복지부

에 대한 환자 부담을 완화하고,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에 나섰다.

먼저, 2014년 8월부터 선택진료비 부과 상한금액을 진료 수가의 20~100%에서 15~50%로 축소해 환자 부담을 경감했다. 이에 따라 연간 총규모 약 1조4365억 원에 달했던 선택진료비는 5434억 원 감소한 8930억 원으로 줄어 환자 부담이 약 37% 경감됐다(2014년 기준). 그러면서도 선택진료의 본래 취지에 따라 우수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에서의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간이식술 등 고도·중증 수술 1602개 항목의 수가를 현실화하고 암 환자에 대한 통합진료 수가 등을 신설했다.

상급병실료의 경우 기존에 상급병상이던 4·5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4인실 기준 입원료 부담이 평균 65~70% 이상 감소했다. 그 결과 연간 총규모 약 1조1772억 원에 이르던 상급병실료는 1893억 원 감소한 9879억 원으로 줄어 환자 부담이 약 16% 경감됐다(2014년 기준).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올해 9월부터는 원치 않는 선택진료 이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별 선택의사 지정 상한 비율을 80%에서 67%로 축소했다. 상급병실의 경우 대형병원에서의 원치 않는 1·2인실 이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병상 보유 의무를 50%에서 70%로 확대했다. 또한 비급여 축소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우수 의료기관에 대한 질 평가 수가 신설 ▶마취·수술 과정의 환자 안전 관련 수가 개선 ▶중환자실, 무균실 등 필수 특수병상 운영 지원 등 수가 개편을 했다. 그 결과 원치 않는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 이용의 최소화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돼 연간 환자 부담을 2782억 원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2013년부터 국고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온 포괄간호서비스에 올해 1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함으로써 간병 부담을 완화하고 간호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포괄간호 서비스 사업 참여 병원은 2013년 13개에서 2014년 28개, 올해 10월 현재 102개로 빠르게 늘었으며, 약 9만6000명의 환자가 포괄간호 서비스를 이용했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2만 원 정도로, 일반병동보다 단지 1만2000원 늘어난 비용으로 간호인력 중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본계획에 따른 단계적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2016년 9월부터 선택의사 비율을 현행 병원별 67%에서 33%로 축소해 환자의 선택진료비 부담을 약 30% 추가 경감하고, 의료 질 평가 지원금을 연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하며, 의료기관 간 진료 협력 활성화를 위한 수가 지원 등도 강화할 예정이다. 2017년엔 남은 선택의사의 선택진료를 비급여제도 대신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라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 영역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포괄간호 서비스도 2016~2017년 지방 중소병원 중심으로 확대하고, 병원 내 감염 관리를 위해 서울 및 상급 종합병원에 대해서도 감염 우려가 높은 병동 1~2개는 2016년부터 포괄간호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G

“나를 위한, 모두를 위한 복지 정보 다 있네”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양방향 소통으로 맞춤형 서비스

김민주 | 위클리 공감 기자

“나에게 맞는 복지 서비스는 어디에서 알아보면 될까?” 이런 궁금증을 갖고 있는 이라면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들어가보자. 정부는 복지로를 대국민 창구로 운영하면서 국민에게 유용한 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로에서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복지 혜택과 관련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또한 방문자는 생애주기별 복지 정보와 모의계산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개인별 특성에 맞게 찾을 수 있고, 온라인으로 복지 서비스를 직접 신청까지 할 수 있다.

복지로는 이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어려운 이웃을 찾고 도움을 나눌 수 있는 매체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복지로에서는 국민이 직접 참여해 어려운 이웃을 찾고, 보건·복지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참여와 소통의 공간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이 포털은 그동안 여러 차례 변화와 발전을 계속해왔다. 복지로 1.0 시대(2005~2010년)에는 일방적인 정보 전달 방식으로 국가 복지 정보 포털로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2010년 희망길잡이넷과 통합해 복지로 누리집이 개설됐다.

복지로2.0 시대(2011~2014년)는 양방향식 소통이 가능한 방식으로 바뀐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시기에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복지 서비스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시작했다. 복지로3.0 시대(2014년 12월 이후)에는 이용자 참여형, 개인 맞춤형 포털로 탈바꿈했다. 이 시기부터 복지로는 국민 참여형 포털로 바뀌면서 개인 맞춤형 콘텐츠가 확대되고 도움 신청, 지식 나눔, 부정수급 신고 등의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나를 위한 복지 서비스’를 한눈에
중앙부처 360종, 지자체 1만2000종 정보 제공

복지로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 ‘나를 위한 복지 서비스’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중앙부처에서 하는 360종의 사업, 지자체에서 하는 1만2000종의 복지사업 및 사회보장 정보를 한곳에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국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연령별, 대상별, 욕구별로 임신과 출산, 영·유아, 아동과 청소년 등 16가지의 분류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등 쉬운 문구로 정보를 알려준다. 이와 함께 세 번의 간단한 클릭만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쉽게 검색할 수 있으며, 모의계산도 해볼 수 있다. 또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4대보험 정보

나를 위한 복지 혜택 찾으러 Go, Go!

나를 위한 복지 서비스 찾기

복지 서비스 정보 〉 나를 위한 복지 서비스 〉 복지 서비스 찾기 – 간편검색



- 연령대, 가족 특성 · 처한 상황, 필요한 지원 분류를 선택해서 나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쉽게 찾아보세요.
-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360종의 복지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복지 서비스 지원 여부 모의계산하기

복지 서비스 정보 〉 나를 위한 복지 서비스 〉 복지 서비스 모의계산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해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등 8개 복지사업의 모의계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복지 서비스 온라인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 〉 복지 서비스 선택 〉 정보 입력 〉 신청하기

-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 기초연금, 양육수당, 보육료 · 유아학비 등 11개 복지사업에 적용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시스템을 연계해 내가 받은 복지 수혜 이력과 4대 보험 관련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다.

둘째, 복지로 누리집에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복지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는 총 11종으로 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아이돌봄 등 '영·유아 서비스' 4종, 장애인 활동 지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 지원 등 '바우처' 2종, 기초연금, 고교 학비·급식비·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교육 정보화 지원 등의 '초·중·고 교육비' 4종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를 통해 맞벌이 부부와 장애인 등 주민센터를 직접 이용하는 게 불편한 사람들의 편의를 높이고 있다.

셋째, 복지로 누리집에서는 복지와 관련된 생생한 소식을 접할 수 있다. 복지 관련 뉴스, 이슈, 칼럼은 물론 복지 수혜로 삶이 바뀌었거나 나눔에 관련된 이야기 등 따뜻한 감동이 있는 실제 사례를 소개한다.

또한 보건·복지 통계 및 복지사업 등의 복잡한 정보를 시각화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을 제공하며, 개인의 관심 분야(생애, 관심 주제, 가구·대상)에 따라 다양한 최신 복지 정보 및 소식들을 '복지로 뉴스레터'를 통해 제공한다.

도움과 나눔의 공간
부정신고 창구로도 활용 가능

넷째, 복지로를 '도움과 나눔'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부정신고' 창구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본인 또는 그 이웃이 온라인(웹, 모바일)으로 도움을 신청할 수도 있다. 또한 복지로에 연계된 보건복지콜센터, 희망복지지원단,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자를 통해 상담을 할 수도 있고 복지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다. 더불어 복지로의 '도움과 나눔'을 위한 코너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사연을 공개해 국민이 직접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복지로에서는 부정수급 사례를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받고 있으며,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이메일, 문자 메시지)으로 처리 상황 및 결과를 안내해준다. 또한 국민의 복지 부정 신고로 재정 누수를 막은 실제 사례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알기 쉽게 알려준다.

사회보장정보원 원희목 원장은 "복지로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로서, 국민들이 복지 서비스를 쉽게 찾고 잘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을 통해 복지 지원 혜택이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G

이웃 위한 복지 혜택 신청하러 Go, Go!

복지 신청은 복지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사연을 신청해서 도움 연결



도움이 필요하면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 직접 사연을 신청하거나, 주변에서 대신 사연을 올려주세요.

※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에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세요.



복지로 누리집에 접수된 사연은 보건복지콜센터(129)나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전달되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상담 후 가구 상황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공적 지원 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지재단, 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연계해드립니다.

복지로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연락



- 복지로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복지콜센터(129)에서 전화로 상담해보세요.
- 콜센터(129)는 영상수화상담 서비스나 온라인을 통한 1:1 채팅 상담도 가능합니다.



불합리한 규제,
아직도 발목잡고 있습니까?

두드리세요!
규제개혁신문고

규제개혁신문고 ▼ 검색

국무조정실 | 규제개혁신문고과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TEL : 044-200-2628~2639 FAX : 044-200-2546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정부세종청사 1동 205호 규제개혁신문고과 (http://www.better.go.kr)

애로사항 있으면 두드려라!

규제개혁신문고 올 10월까지 7963건 중 40.1%인 3097건 수용

박샛별 | 위클리 공감 기자

국민을 위한 규제개혁신문고(www.better.go.kr)는 2014년 3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계기로 국민의 규제 개선 의견을 직접 듣고, 규제 때문에 생긴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개설된 온라인 중심의 원스톱 규제 건의 처리 창구다. 규제 개선 건의는 청와대 누리집과 규제정보포털, 각 부처 누리집 등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의 건의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어떤 건의들이 수용돼 개선되었는지를 규제정보포털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규제개혁신문고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 중심의 규제 건의 처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각 부처에 규제 건의가 접수되면 14일 내에 국·과장이 실명으로 답변하도록 해 답변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높였고, 소관부처의 자의적 판단으로 합리적 건의가 수용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건의의 타당성에 대해 '부처 답변→국무조정실 소명 조치→규제개혁위원회 개선 권고' 등 세 차례의 검토 단계를 거치고 있다. 이러한 검토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부처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소관부처에서는 국민의 처지에서 객관적으로 검토했는지 검증할 수 있게 됐다.

이렇듯 규제개혁신문고에는 국민의 높은 참여로 올해 10월 말까지 7963건의 규제 건의가 접수돼 그중 40.1%인 3097건이 수용됐다. 2013년 한 해 총리실로 접수된 규제 건의가 300건으로 이 가운데 8%인 24건이 수용된 것과 비교하면, 건의도 폭발적으로 늘었고 수용률도 약 8배 상승했다. 그 결과 국민들의 목소리로 중요한 규제가 개선된 사례 또한 생활 속에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최근 해외 직접구매가 1조 원 규모로 크게 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2012년 1181건에서 2013년 1551건으로 31%나 증가했다. 하지만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해외 직접구매 물품을 반품하고 관세를 돌려



규제개혁신문고 누리집 캡처.

받기 위해서는 판매자와 협의 후 수입면장, 반송사유서, 물품 목록 등 각종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하고, 또 구비서류를 받아 관세사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신청해야 했다. 이러한 절차가 너무 번거롭다는 건의에 따라 관세청은 해외 직접구매 물품을 반품할 때 개인 구매자가 직접 수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2014년 7월 14일 '인터넷 통관포털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관세 환급 절차를 간소화했다.

건의 내용을 분류해보면 2014년 3월부터 12월 기준으로 일반 국민 건의가 46.9%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자 31.5%, 기업 19.4%, 기타 2.2% 순이었다. 수용돼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민 생활 관련 건의가 43.5%, 자영업자 관련 30.9%, 기업 관련 23%, 기타 2.6%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 건의 개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신문고는 향후에도 각 부처가 국민의 처지에서 내실 있게 검토해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G

지방·중앙 상층 규제개혁에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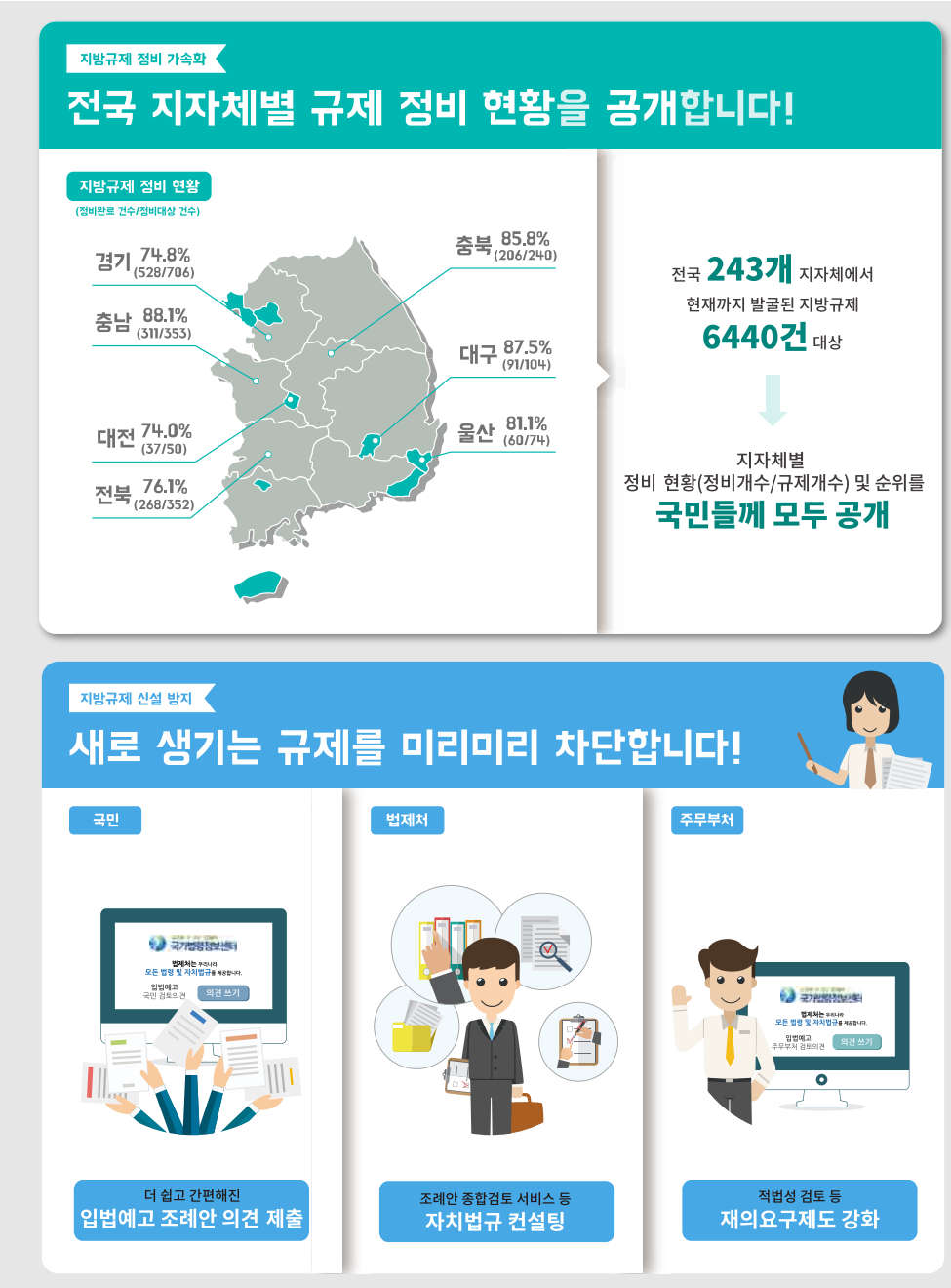
지방규제 정비 불합리한 조례 등 모두 공개… 누구나 개선 요구할 수 있어

박샛별 | 위클리 공감 기자

사업가 박모 씨는 공유재산인 A시 소유 건물에 1년 넘게 입주하고 있는데, A시가 난데없이 건물 임대료를 지난해에 비해 7% 올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난해 대비 임대료가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 조정할 수 있었지만 A시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 마침 A시 조례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의 하나로 지목됐고, 2015년 12월까지 정비할 예정이었다. 박모 씨는 불필요한 지방규제를 공개하고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이를 알게 됐다. 이후 그는 곧바로 A시에 조례의 조기 개정을 요청했고 임대료 조정을 거쳐 감액받을 수 있게 됐다.

자영업자 이모 씨는 지난해 12월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앞으로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런데 최근 B도는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를 입법예고하면서 상위법령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해 입간판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이모 씨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알게 됐다. 그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내 의견제출란을 통해 입간판 설치 근거를 조례에 반영해주도록 의견을 제출했고, B도는 해당 내용을 조례안에 반영해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 : 법제처

앞으로 불합리한 지방규제는 모두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 누구나 신설·변경되는 지방규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11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지방 규제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공개 및 사전 차단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기존의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투명하게 공개해 정비 속도를 높이고, 신설·강화되는 불합리한 지방규제는 사전에 차단해 지방규제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첫걸음으로, 2014년 12월부터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법제처 등 12개 부처 합동으로 발굴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6440건 중 10월 말 기준으로 정비되지 않은 2995건을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에 공개한다.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는 법제처와 행정자치부 간 협업으로 국가법령 4500여 건과 자치법규 9만1000여 건을 상호 연계해 법령과 연계된 자치법규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국민은 내 고장의 규제개혁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지자체는 타 지역과 선의의 경쟁을 벌이면서 지방규제의 정비가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해에 발굴한 지방규제 외에도 현행 자치법규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지방규제도 빠짐없이 정비하기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연계한다. 이로써 앞으로는 국민 누구나 불합리한 규제를 발견하면 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조례 정비 4개년 계획에 따라 전국 243개 지자체의 조례 6만여 건에 대한 전수 검토를 실시해 조례 속 숨은 규제를 수시로 발굴하고, 발굴된 지방규제는 행정자치부 및 지자체와 협업해 신속하게 정비해나갈 예정이다.

지방규제 신고센터와 연계
숨은 불합리한 규제 신속 발굴

앞으로 법제처는 신설·강화되는 지방규제는 자치법규 입법 단계별로 적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불합리한 지방규제는 사전에 차단한다.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안 전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해 국민과 주무부처가 입법예고안을 확인하고 시스템상에서 의견을 쉽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지자체는 의견을 반영해 입안하도록 체계를 구축해 자치법규에 대한 협업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한다.

한편 법제처는 법제 전문 인력이 부족해 자치법규 정비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는 표준조례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주무부처가 재의를 요구할 때 필요한 법리적 검토를 지원하고, 자치법규 입법예고안에 대해 법제처 자문을 강화하는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제도를 통해 법제 전문 인력이 부족한 기초 지자체를 지원한다.

법제처는 위임조례 입법 모니터링을 실시해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한 사항이 일정 기간 내에 정비되는지를 확인하는 관리감독 기능도 강화한다. 규제 완화를 위해 법령은 개정됐으나 자치법규가 제때 정비되지 않아 규제개혁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할 방침이다. 또한 법령 조문별, 지자체별 위임조례 정비 현황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그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 개선이 이뤄지도록 한다.

특히 지자체 공무원의 법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시·도 단위의 순회 법제교육과정을 확대해 교육 수요가 많은 시·군·구 순회 법제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기관과 협업해 공무원들의 지방규제 및 자치법규 적법성에 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대책으로 지방규제 관련 정보 공개 강화와 중앙부처 간, 중앙과 지방 간 협업체계가 구축돼 국민 편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번 지방 규제개혁 방안은 대한민국의 우수한 정보기술(IT) 인프라를 토대로 중앙과 지방, 공무원과 국민들의 양방향 소통을 통해 규제개혁을 전국 어디서나 체감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며 "불합리한 지방규제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규제개혁의 톱니바퀴를 돌리고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감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G

'2015 창조경제대상 슈퍼스타 V'

아이디어가 성공 창업으로 연결

대상 수상자 **모니 최준혁 대표**

모니 최준혁(38) 대표는 화학공학 전공자로, 서울대학교 석사과정 재학 중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제품 기획, 생산, 마케팅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실무를 두루 경험했다. 석사과정 졸업 후 합성수지 분야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며 친환경 소재 분야에 대한 노하우도 축적했다. 최 대표가 창업 아이템을 찾은 건 세 딸을 낳으면서 양육의 쓰라린 맛을 느낀 뒤의 일이다.

"첫째, 둘째가 한창 우유를 많이 마실 때 우유팩에 빨대를 꽂아주면 조금 마시다가 빼서 장난치더라고요. 거실이나 소파 위에 우유를 쏟는 경우도 많았죠. 마룻바닥이나 가죽소파에 우유를 쏟으면 얼룩이 생겨서 쉽게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아내가 이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저도 아내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했죠. 그러다 우연히 발명대회 공고를 보곤 제품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는 제품화를 하기 전이고, 막연한 아이디어만 갖고 있었죠."

이후 최 대표는 2013년 모니를 설립해 제품 개발에 힘썼다. 모니(Monee)는 차별화되고 실용적인 유아용품 전문 브랜드로, '엄마에게 가장 필요한 유아용품을 만들겠다'는 의지(Mom+Need, Most+Need의 합성어)를 담았다. 그가 찾은 해결책은 '음료병에 바로 장착해 사용하는 이유용품'인 우유클립과 모니캡. "우유팩에 바로 장착하는 우유클립은 아이들이 빨대를 빼서 장난치는 것을 방지해줄 뿐 아니라 아이들이 손잡이를 잡고 우유를 마실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한다.



중소기업청


최준혁

모니캡은 흘림방지캡으로, 빨대 없이 캡 둘레 가장자리에 입을 대고 가볍게 빨아 마실 수 있는 제품. 최 대표는 "페트병이 넘어지거나 뒤집어지더라도 내용물이 새는 것을 막아줘 차 안이나 이불 위에서도 음료수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면서 "모니캡은 대부분의 패트병에서 사용할 수 있고 아이가 빠는 만큼 액체가 나오기 때문에 쏟을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우유클립과 모니캡은 2014년 1월 출시한 이후 첫해에 5만여 개가 판매됐다. 유아용품 시장은 시장 진입 문턱이 높지만 입소문이 나면 꾸준히 소비가 된다는 장점이 있어 향후 시장성도 밝은 편이다. 제품을 온라인, 대형마트 등으로 판매한 데 이어 수출을 준비하는 최 대표는 모니 설립 후 특허등록 5건을 포함해 지적재산권 10건을 등록했고, 국내외 발명대회에서 7차례 수상하며 제품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전문가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이번 대회에 참여하며 든든한 지원군을 얻었다"는 최 대표는 "감회가 남다르다"고 했다. 2013년 '창조경제대상 슈퍼스타 V' 전신인 중소기업청의 '대한민국 창업리그'에 도전했다가 예선에서 탈락했는데 올해는 대상을 받게 됐으니 그럴 만도 하다.

"다른 대회의 경우 전문가들의 평가만 받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전문 평가단의 평가(60%), 온라인 시장조사(30%), 현장 청중 평가단(10%)의 평가를 받았어요. 그 덕에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저희 제품을 좋게 생각하신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앞으로 실용적인 유아용품을 더 열심히 개발하겠습니다!" G

이혜민 | 위클리 공감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은 11월 23일 전국 창업경진대회 최종 결선인 '2015 창조경제대상 슈퍼스타 V'를 서울 문화창조융합센터에서 열고, 올해 최고의 창업 아이템 10개를 선정했다. 올해 최고의 아이템은 '2015 창조경제 박람회'에 전시됐다. '창조경제대상 슈퍼스타 V'는 국내 최고의 아이디어 창업경진대회로, 지난해 처음으로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 아이디어 경진대회'와 중소기업청의 '대한민국 창업리그'를 통합해 개최했다.

대상(1팀)에 선정된 모니 최준혁 대표는 상금 1억 원과 국무총리상을 받았으며, 금상(1팀)의 하우투리슨 이재건 대표는 상금 5000만 원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 은상(1팀)의 네고 박영호 대표는 상금 3000만 원과 중소기업청장상, 동상에 선정된 7팀은 상금 1000만 원과 중소기업청장상을 각각 받았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은 "수상팀에 대해 창업사업화 우대 지원은 물론 해외 창업연수, 투자 유치 설명회(IR)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꿈을 향해 도전하는 창업자들의 등용문인 '창조경제대상 슈퍼스타 V'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G

금상 수상자 **하우투리슨 이재건 대표**

하우투리슨 이재건(41·사진 맨 오른쪽) 대표는 전직 영어 듣기 강사. 그는 아이들이 숙제를 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 2007년 하우투리슨 누리집을 만들었다. "아이들이 무료로 영어 듣기를 하면 서버에 기록이 남고, 관리자가 점수까지 확인할 수 있어 호응이 좋았다"고 한다. 2011년에는 하우투리슨 앱을 만들었다. 순식간에 50만 명이 내려받기를 한 앱 또한 무료다. 사업성을 확인한 그는 2013년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인큐베이팅을 받으며, 함께 있던 40개 업체 중 기술력이 뛰어난 팀제이디자인과 함께 지난해 1월 하우투리슨 합작 법인을 만들었다.

현재 하우투리슨은 이 대표와 전(前) 팀제이디자인 윤재현 대표가 공동 대표다. 10개월 노력을 들인 끝에 하우투리슨은 '앱을 기반으로 한 솔루션'으로 B2C(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와 B2B(기업과 기업 사이에 이뤄지는 전자상거래) 앱을 만들었다.

이재건



"B2C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요. 예전에는 영어 듣기 문제를 풀면 몇 점인지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수험자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 취약점까지 알려줍니다."



이재건

B2B는 학원이 연간 100만 원 이용료를 하우투리슨에 지불하는 지니어스(Genius) 프로그램. B2C의 기능에 학원의 관리 시스템을 추가했다. 즉 강사가 문제를 추려서 내면 학부모와 학생이 푸시 알람을 받고, 이후 학생이 문제를 풀면 학부모와 강사가 실시간으로 학생의 점수, 취약점, 전략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아이템은 출시한 후 1억20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한 상황. 이 대표는 "직원 13명 중 영업 전문가가 없어 매출이 부진하지만 영업 전문가가 영입되면 사업성이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직 매출 규모는 작지만 무료 앱이 많은 상황에서 이 정도면 사업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직원들의 사기가 한껏 높아졌으니 기대해주세요!" G

오감이 짜릿 아시아 문화 체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다양한 프로그램과 국제 문화 교류

박샛별 | 위클리 공감 기자

'아시아 문화 교류의 거점이자 창작 문화예술기관의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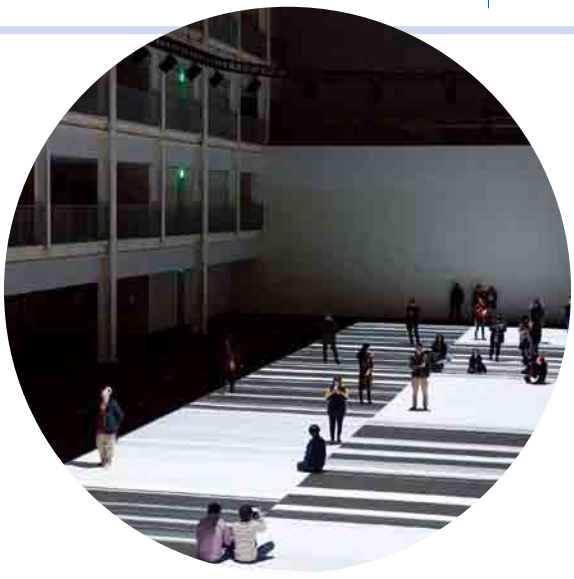
11월 25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 드디어 문을 열었다. 개관식은 황교안 국무총리,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중앙아시아 5개국 문화장관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문화전당은 앞으로 전시·아카이브, 공연·페스티벌, 강좌·심포지엄, 레지던시·워크숍, 어린이 등 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국제 문화 교류의 장으로 단단히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현재 아시아 문화를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풍성한 프로그램이 문화전당에서 펼쳐지고 있다. 아시아 문화 연구를 기반으로 한 국제적 수준의 강좌·심포지엄 프로그램은 우리에게 깊은 사유의 기회를 준다. 또한 수집된 문화자원은 신개념 형태의 도서관인 '라이브러리 파크(Library Park)'를 통해 체험할 수 있다. 미디어 전시회인 '더 그라운드–테스트 패턴'은 개관일에 맞춰 관람객을 맞이했고, 연극 '소리의 숲', 인형음악극 '깔깔나무', 학술 강좌 '아시아 대중음악' 등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이 준비돼 있다. G

전시·아카이브 프로그램

문화전당에서는 아시아 문화유산의 디지털 자료 저장소인 아카이브를 활용해 콘텐츠를 기획하고 창작과 제작 활동도 이뤄지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독일 훔볼트포럼의 아시아 문화유산 3D 데이터를 활용해 아시아 신화 콘텐츠 등 세계적인 전시도 진행할 예정이다.



더 그라운드 – 테스트 패턴(The Ground– Test Pattern)

일본 미디어 아티스트인 료지 이케다의 전시로, 텍스트, 사진,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0과 1의 이진수로 변환해 바코드 형태의 패턴으로 만든 미디어 작품을 선보인다. 가로 50m, 세로 10m의 크기로 투사되는 초대형 오디오비주얼 작품은 보는 사람을 압도한다.

| **전시기간** 11. 25~12. 31 | **장소** 문화창조원 복합1관

상상원 아시아 – 플라스틱 신화들(Plastic Myths)

'과거'의 오래된 신화를 통해 '지금, 여기', 그리고 변화하는 '미래'의 아시아를 이야기한다. 28개의 셀로 구성된 전시 공간에서는 뉴미디어, 영상, 설치, 사진, 퍼포먼스 등 다양한 형식의 콘서트, 강연, 공연이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된다. 특히 전시에는 고려 팔만대장경 이미지를 3D 파일로 디지털화해 로봇을 통해 '다시 쓰기' 작업을 시도하는 고려대장경연구소의 '21C 대장경 프로젝트'도 함께 펼쳐져 눈길을 끈다.

| **전시기간** 11. 25~2016. 5. 15 | **장소** 문화창조원 복합2관



공연·페스티벌 프로그램

문화전당은 계절별로 대형 야외축제인 ACC 월드뮤직 페스티벌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고 예술극장 페스티벌과 액트(창작센터) 페스티벌 등도 추진 중이다. 앞으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페스티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트웨이 숲의 '소리의 숲'

'소리의 숲'은 아시아예술극장이 직접 제작한 사운드· 연극 작품이다. 이야기는 화자가 산으로 갔던 어느 날에서 시작된다. 산에서 길을 잃은 화자는 9일 뒤 정신을 잃은 채 발견되며 사라진 9일 동안의 시간을 흥미진진하게 풀어낸다.



| **일시** 12. 5, 17:00 / 12. 6, 15:00
| **장소** 예술극장 극장1



검은 밤의 '비는 오지 않지만 우리에겐 우산이 있지'

'비는 오지 않지만, 우리에겐 우산이 있지'는 광주 일대의 기억 속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음악극이다. 공간 속에서 기억과 마주한 이야기들은 과거라는 실체에 다가가려 하고 동시에 망각의 미로와도 맞닿아 있다.

| **일시** 12. 12, 19:00 / 12. 13, 16:00 | **장소** 예술극장 극장1–1

눈길 끄는 어린이 프로그램

문화전당은 1만6400㎡의 국내 최대 어린이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다. 문화전당은 창작 공연과 새로운 놀이기구, 또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고 선보인다.



인형음악극 '깔깔나무'

카자흐스탄 설화에서 영감을 얻어 영상과 음악을 결합해 만든 새로운 형태의 멀티미디어 인형극이다. 곰 인형 '곰곰이'를 찾아 떠나는 여덟 살 소년 파니의 유쾌한 모험기를 그려냈다. 아이들에게 감동과 새로운 경험을 안겨준다.

| **일시** 12. 4, 16:00, 19:30 / 12. 5~6, 11:00, 15:00
| **가격** 전석 1만 원 | **장소** 어린이극장



어린이 문화놀이터

문화 다양성 사회를 살아가는 어린이들의 문화 역량을 함양하는 프로그램. 집을 주제로 아시아 여러 나라의 생활 문화를 체험하고 직접 집을 짓는 활동을 하면서 문화 감수성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다.

| **일시** 12. 12~2016. 2. 27(12주 과정) 세부 시간은 기관 문의
| **대상** 초등학교 1~2학년 | **비용** 6만 원(재료비 포함)
| **장소** 생활문화실

2016학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

11월 24일~12월 16일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입생은 장학금 신청 가능 대학 확인을

이혜민 | 위클리 공감 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11월 24일부터 12월 16일까지 23일 동안 접수한다. 올해부터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이 기간에만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추후 신청은 제한된다. 또한 2016학년도 신입생은 '대학 미정' 상태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이후 대학 등록금 고지서를 받을 때 국가장학금 지원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신입생은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인지 아닌지를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한 뒤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으려면 미혼자 학생은 부모, 기혼자 학생은 배우자의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즉 학생 본인과 가구원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한다. 단 가구원이 해외 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동의가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만약 2015년 국가장학금 신청 당시 가구원의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했고 가구원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정보 제공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저소득층 고등교육 기회 확대

한편 정부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저소득층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정부(3조9000억 원)와 대학(3조1000억 원)의 노력으로 7조 원을 준비해 2011년 총 등록금(14조 원) 대비 등록금 부담을 절반가량 줄인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기반을 마련한 상태다. 그 결과 3분위 이하 저소득층의 경우 국공립대는 102.2%, 사립대는 87.5%의 등록금을 국가장학금과 교내·외 장학금으로 지원받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다양한 국가장학금을 통해 반값등록금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Ⅰ유형은 소득 8분위 이하 중 성적 기준(80점) 및 기준 이수학점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한다. Ⅱ유형(대학 자체 노력 연계 지원)은 대학별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하며, 지방대학 우수 신입생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제공한다. 2014년 이후 대학에 입학한 소득 8분위 이하 셋째 자녀 이상 대학생에 대해서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에도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을 유지하고, 구체적인 지원계획은 내년 1월 발표할 예정이다. G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빈 병 보증금 소주 100원·맥주 130원

수도권 대형마트 8곳에 빈 용기 무인회수기 12대 설치



뉴시스

9월 22일 홈플러스 서울 영등포점에서 시민들이 처음 설치된 빈 용기 무인회수기를 이용하고 있다.

조영실 | 위클리 공감 기자

다 쓰고 남은 빈 병. 무겁고 깨지기도 쉬워 처리하기 쉽지 않았던 '골칫덩어리'가 돈 벌어주는 '보물단지'로 탈바꿈한다. 잘 모아뒀다 빈 용기 무인회수기에 반납하기만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함께 수도권 대형마트 8곳에 빈 용기 무인회수기 12대를 설치하고 소비자 상담센터(1522-0082)를 개설(11월 2일)해 빈 용기 무인회수기 시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9월 22일 홈플러스 서울 영등포점에 국내 최초로 무인회수기 2대를 설치한 데 이어 10월 31일 롯데마트(구로점, 도봉점, 월드타워점, 광교점), 이마트(성수점, 고잔점), 홈플러스(가좌점) 등 수도권 지역 마트 7개 지점에 10대를 추가로 설치했다.

빈 용기 무인회수기 설치는 내년 1월 21일부터 2배 이상 오르는 빈 용기 보증금을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돌려받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됐다. 소주병은 현재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오른다. 음료수병을 반납하면 100원을 받을 수 있다.

회수량 20% 이상 증가 빠른 호응

빈 용기 무인회수기는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인지 확인하고 보증금을 환불해주는 자동화 기계다. 따라서 소주병, 맥주병, 음료수병 등 보증금 대상 제품만 반납해야 하며 와인병, 드링크병, 페트병 등 비대상 제품은 반납할 수 없다. 또한 보증금 제도는 빈 병을 재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파손되거나 이물질 등이 남아 있지 않도록 깨끗하게 사용한 뒤 반납해야 한다.

독일(4만여 대)과 핀란드, 노르웨이(1만7000여 대) 등 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빈 용기 무인회수기가 대중화되어 있다. 소비자들은 대형마트에서 쇼핑을 하기 전 무인회수기에 보증금 대상 용기를 반납하고 출력되는 영수증을 물건을 살 때 사용한다. 국내에선 용기 반환 후 출력되는 영수증을 마트 고객센터에서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방식이다.

가장 먼저 시범 사업을 시작한 홈플러스 영등포점은 운영 1개월 만에 빈 병 회수량이 하루 평균 약 970병으로 증가했다. 무인회수기가 설치되기 전에는 하루 평균 회수량이 약 800병 수준이었다. 특히 전문 수집인이 대량으로 한꺼번에 반환하던 방식에서 인근 지역주민들이 소비한 빈 병을 직접 반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편 소비자 상담센터에서는 내년 1월 21일 시행 예정인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적용 전까지 빈 용기 보증금 제도를 안내하고 보증금 인상 등 달라지는 내용을 소비자들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담한다. 또 '소비자 신고 보상제도'에 따라 특정 시간과 날짜에만 빈 병을 받거나 보증금을 일부 지급 또는 미지급하는 소매점에 제도를 안내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신고 소비자에게는 최대 5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유승광 과장은 "지난 9월 설치된 무인회수기 운영 결과, 회수량이 20% 이상 증가하는 등 빠른 호응을 보이고 있다"며 "무인회수기와 빈 용기 보증금 상담센터 운영, 환불 표시 개선 등을 통해 소비자가 더 편리하게 반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1 1950년대 후반 '열아홉 순정'으로 인기를 얻은 뒤 '동백아가씨', '섬마을 선생님'으로 일약 대스타로 떠오른 가수 이미자. 2 조용필은 1980년대부터 자신의 시대를 열었다. 3 '난 알아요'로 데뷔해 1990년대 대중문화계를 장악했던 '서태지와 아이들.'

시대와 삶을 달래준 그 노래들 'K-팝'으로 거듭났잖아!

김병희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 전 한국PR학회장

라디오를 허리춤에 차고 남산 산책을 나갔지.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데, 때마침 패티 김의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야. '겨울은 아직 멀리 있는데~' 하는 대목에서 구보 씨는 잠시 인생의 겨울에서 어디쯤 와 있나 싶었어. 울컥하며 돌아가신 어머님 생각도 났지.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의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 (부모)가 머릿속을 스쳐갔어. 유행가는 그동안 어떻게 변해왔을까.

유행가엔 서민의 삶이 녹아 있다고 할 수 있지. 광복되고 나서 미군이 들어오자 '미8군 쇼'는 가수의 등용문 구실을 했어. '목포의 눈물'로 유명한 이난영 씨 알 거야. 그녀의 세 딸이 김시스터즈를 만들어 주한미군들을 열광시켰지. 패티 김, 신중현, 이금희, 서수남, 윤복희, 한명숙, 임희숙 같은 가수도 미8군 무대에서 인기가 대단했어. 트로트나 신민요 영역에선 한복남, 현인, 박재란, 이해연, 명국환, 권혜경, 이미자 씨의 노래가 인기를 끌었지.

특히 이미자는 1950년대 후반 '열아홉 순정'으로 인기를 얻은 뒤 '동백아가씨', '섬마을 선생님'으로 일약 대스타로 떠올랐어. 1961년엔 한명숙의 '노란 샤쓰의 사나이'가 대단했지. 택시기사의 유니폼이 모두 노란색으로 바뀔 정도였으니까. 1963년엔 현미의 '밤안개', 1965년엔 남일해의 '빨간 구두 아가씨'가 히트곡이었지. 1966년엔 최희준의 '하숙생', 1967년엔 남진의 '가슴 아프게', 정훈희의 '안개', 배호의 '돌아가는 삼각지', 1969년엔 나훈아의 '사랑은 눈물의 씨앗' 같은 심금을 울리는 명곡들이 잇따랐어.

작곡가 겸 가수 신중현이 혜성처럼 등장한 것도 이 무렵이야. 그는 '애드4'라는 당대 최고 그룹을 조직해 1963년 '빗속의 여인'과 '커피 한 잔'을 발표했어. '미인'은 지금도 꾸준히 불리는 명곡이잖아.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부른 차중락도 잊을 수 없네.

당시 가요계는 트로트가 대세였지. 남진이 군복무 하러 월남에 갔다 온 사이 나훈아가 스타로 자리잡았지. 그러자 남진은 엘비스 프레슬리를 흉내 낸 허리춤을 선보이며 '님과 함께'와 '그대여 변치 마오' 같은 노래로 대중을 열광시켰어. 나훈아와 함께 트로트의 양대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동아DB

노래를 좋아하는 국민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노래방.

산맥을 이룬 거지. 트로트에 로큰롤을 가미한 댄스곡을 선보인 남진은 아마 처음으로 노래에 춤을 가미한 남자 가수였을 거야. 요즘 아이돌 그룹의 원조 격이라 할 수 있지. 남진과 나훈아 두 사람이 리사이틀(극장 쇼) 공연을 하면 그 지역 공단 여공들이 단체로 결근하는 탓에 공장들이 하루나 이틀 문을 닫을 정도였어.

유난히 노래 좋아하는 민족

노래방 2, 3차도 다반사

1970년대 초부터는 재즈풍 노래가 인기를 끌었고,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통기타 붐도 대단했어. 청바지와 통기타가 청년문화의 상징이 된 거지. 1971년 은희의 '꽃반지 끼고'가 아르페지오 선율에 힘입어 주목을 받았고, 김민기와 양희은의 '아침 이슬'이 대학가 캠퍼스와 커피숍을 장악했어. 김정호, 송창식, 이장희, 조영남, 윤형주, 김세환의 노래는 1970년대 청년문화의 격정과 허무감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해. 1975년엔 가요 규제 조치가 내려졌지. 그래서 가수들은 생계를 위해 CM송(광고 노래)으로 눈길을 돌렸는데, 윤형주나 김도향의 CM송이 한 편의 시처럼 빛나던 시기였지.

그런 암흑기에도 이정선, 정태춘, 조동진 같은 가수는 시대의 우울을 노래했어. 1979년엔 윤시내의 '열애'가 대히트를 기록했는데, 마치 한 마리 사자가 포효하는 듯 가창력이 대단했지.

1980년대부터는 조용필의 시대였어. 1980년 '창밖의 여자'와 '촛불'을 발표해 그해 모든 가요제의 대상을 휩쓸었을 거야. 조용필은 '창밖의 여자'를 비롯해 '킬리만자로의 표범' 같은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하고 늘 새로운 음악적 실험을 했기 때문에 모름지기 '가왕(歌王)'이라고 할 수 있을 거야. 이후 이용의 '잊혀진 계절', 임병수의 '약속', 최진희의 '사랑의 미로',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 이선희의 'J에게' 같은 발라드 계열의 노래는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장르가 됐어. 1980년대 음악의 주류였던 발라드는 계속 발전해 이문세, 변진섭, 윤상, 신승훈 같은 가수들이 이끌어갔지.

아마도 1980년대가 우리 대중음악의 르네상스 시기였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거야. 음악 전문가의 해설을 보았더니, 이 시기에 다양한 장르의 대중가요가 공존했고 여러 가지 음악적 실험이 이뤄졌다 하더라고. 김현식, 들국화, 한영애, 봄여름가을겨울, 동물원 같은 가수들은 방송에 출연하지 않으면서도 가수로서 확고한 입지를 만들어간 거야. 라이브 음악의 강자들이 TV에 나오지 않고도 노래 실력만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거지.

1990년대 서태지와 아이들의 등장은 하나의 충격이었어. 구보 씨도 '난 알아요'를 방송에서 처음 봤을 때(들은 게 아니고), 노래가 아니라 춤이라고 생각했어. 노래도 아니라고 비판한 사람들이 많았지. 그런데 어린 친구들이 가수란 노래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줬어. 당시 서태지와 아이들은 이 노래 한 곡으로 대중문화계의 대통령이 됐지. 힙합 장르를 본격적으로 대중에게 알린 선구자로도 인정받았어. 그 후 수많은 그룹이 힙합으로 무장하고 가요계에 바람처럼 등장했다 이슬처럼 사라져갔지. 다만 고(故) 김광석이나 고 신해철은 오롯이 자기만의 음악 영역을 만든 거 같아.

2000년대 이후의 대중음악은 서태지와 아이들의 음악적 자식이나 손자뻘쯤 될 거야. 호소력 있는 가창력보다 화려한 춤 솜씨가 지금의 대중음악계를 지배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 랩이 많이 들어간 요즘 노래들은 도대체 무슨 소린지 들리지가 않아. 우리 때 자주 듣던 유행가 가사는 서정적이고 낭만적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아무튼 회식 때 2, 3차로 노래방에 자주 가는 걸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노래를 좋아하는지 알 수 있어. '나는 가수다'나 '히든싱어' 같은 방송의 노래 자랑 프로그램도 대단한 인기를 끌었잖아. 그만큼 사람들이 유행가에 관심이 많다는 증거겠지. 앞으론 유행가가 주로 10대만 겨냥하지 말았으면 싶어. 중·장년층이나 구보 씨 같은 노년층도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들도 나왔으면 좋겠어. G

*이 시리즈는 박태원의 세태소설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1934년)의 주인공 구보 씨가 당시의 서울 풍경을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살아온 지난 70년의 기억을 톺아본 글이다.



넌 꽃만 보니? 난 먹고 즐긴다

야생화 등 식물자원으로 6차산업 선도와 방향 모색

글·사진 이동혁 | 야생화 칼럼니스트

6차산업이라는 말이 신문 경제면에 심심찮게 등장하곤 한다. 6차산업이란 1차산업인 농수산업, 2차산업인 제조업이나 가공업, 그리고 3차산업인 서비스업이 융합된 산업을 말한다. 3차산업과의 연계 분야는 유통, 판매, 체험, 관광, 축제, 외식, 숙박, 컨벤션, 치유, 교육 등 매우 다양하다. 즉 6차산업은 생산된 농수산물을 가공하거나 제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비스업으로 확대해 더욱 높은 부가가치를 꾀하는 산업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6차산업을 각 산업의 단순 결합이 아닌 융합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각 산업 분야가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융합돼야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6차산업은 농촌 창조경제의 대표적인 실현체계다. 창조경제는 창의력과 상상력,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융합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경제 패러다임이다. 농산물에도 창의력과 상상력을 더하면 다양한 형태의 가공상품과 관광 체험 서비스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이로써 '기존에 없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6차산업의 목표다.

정부는 2002년부터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선정해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 농어촌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널리 홍보하고자 기획한 'Rural(지방) 20 프로젝트'도 그중 하나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적 경관과 전통이 생생하게 살아 있는 농어촌 체험마을 20곳을 선정해 네가지 주제별(체험, 자연, 전통문화, 참살이)로 이야기가 있는 여행 코스 및 홍보 자료를 개발했다.

농어촌 6차산업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박근혜정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6차산업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6차산업화를 유도하고 있다. 6차산업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히는 곳은 충남 청양군의 알프스마을로, 이 마을은 농촌지역에 흔히 존재하는 일상적 자원에 상상력을 더해 자립형 축제를 만들었다. 여름과 겨울에 각각 '여름철 세계 조롱박 축제'와 '겨울철 칠갑산 얼음분수 축제'를 열고 지역만의 흥미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 등을 만들어 6차산업을 선도한다.

야생화를 이용한 대표적인 축제는 강원 정선군 고한읍의 '고한 함백산 야생화 축제'다. 이곳에 가면 등산하지 않고도 고지대에 피는 꽃을 마음껏 관람할 수 있다. 천상의 화원이라 일컫는 만항재에서 여름 동안 벌어지는 이 축제야말로 6차산업의 진수를 보여준다. 과거 활발했던 광산의 옛 모습과 광산 유물, 갱구 체험 등 다양한 공간을 확보했다. 이 축제는 야생화 특유의 식용성과 약리성(생체에 들어간 약품이 일으키는 생리적인 변화)을 알려 고한을 건강 생태 관광지로 만들고 있다.

또 다른 야생화인 메밀꽃은 강원 평창군 봉평면 '봉평 메밀꽃 축제'를 통해 농촌 6차산업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직접







(왼쪽)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유채꽃밭을 찾은 관광객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1 산수유꽃축제로는 경기 이천시 산수유꽃축제, 전남 구례군 산수유꽃축제가 유명하다. 2 메밀꽃이 장관을 이룬 강원 평창군 봉평면 효석문화마을에서 축제를 즐기러 온 방문객들이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3 위도상사화. 전북 부안군 위도에서는 최근 위도상사화 축제를 열기 시작했다.

재배한 메밀로 막국수나 메밀전을 만들어 판매할 뿐 아니라 메밀꽃을 대단위로 심어 관광객을 부른다. 관광객은 소금을 뿌린 듯한 메밀꽃 군락 속에서 메밀로 만든 음식을 먹으며 이효석의 문학에 빠져든다. 이효석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이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힘이 되는 것이다. 이야기를 가진 꽃은 계속해서 회자되며 세인들의 관심에서 멀어지지 않는다. 누리소통망(SNS)이 발달한 요즘은 이야기가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소다.

낙후된 농촌지역과 식물원, 휴양림에서도 6차산업 가능

관광객을 유치하는 야생화로는 제주도의 유채만 한 것이 없다. 제주도는 이미 2007년부터 6차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곳이다. 유채를 단순한 먹거리로 인식하지 않고 가슴 설레게 하는 샛노란 봄꽃이라는 점에 착안해 대단위로 심어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데 이용한 지 오래다. 그러다 보니 유채는 자연스레 제주도를 상징하는 꽃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북 부안군 위도에서도 '위도상사화 축제'를 열기 시작했다. 분홍색 꽃이 피는 상사화와 달리 상아색 꽃이 피는 위도상사화를 군락으로 심어 수많은 사진사를 섬으로 건너오게 한다. 위도상사화는 줄기를 식용하므로 다양한 상품으로도 개발할 수 있다.

6차산업은 농민과 지역민이 주도해 만드는 산업이다. 그러므로 다른 산업과의 경계를 허물고 융합해 낙후된 농촌의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산업이라 할 수 있다. 6차산업화의 기치를 내걸고 정부가 노력한 결과 곳곳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보고되고 있다.

실례로 경남 창원시의 빗돌배기마을에서는 고품질의 단감을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단감와인과 감잎차, 단감파이 등을 개발해 수익을 올리는 한편 가공품을 만들어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체험 관광만으로 연 매출 10억 원을 돌파했다. 그런가 하면 산 좋고 물 좋은 강원 영월에서는 지역의 장점을 살린 친환경 먹거리로 성과를 내고 있다. 산채연구회를 조직해 건곤드레와 냉곤드레로 품질을 고급화했고, 그러한 전략이 시장성을 인정받아 농가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영월은 체험 행사와 요리 경연대회 같은 6차산업으로 연계해 연 매출 40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6차산업은 낙후된 농촌지역뿐 아니라 식물원이나 수목원 또는 휴양림에서도 가능하다. 우리 주변에는 숙박을 겸한 여러 체험상품을 내놓아 관심을 끄는 곳이 많다. 특히 휴양림은 숙박시설과 오토캠핑장 시설을 갖추고 있어 도시를 벗어나 아이들과 정겨운 시간을 보내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치유의 공간이다. 이는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다.

그럼에도 우리 야생화를 이용한 6차산업 분야가 미진하다는 사실이 못내 찜찜하다. 언제까지고 외국의 허브식물이나 도입종 나무의 열매에 의존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식물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 분야가 어디까지 왔는지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G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킁킁거리는 암캐 남성 호르몬 안다?



암캐는 남성 호르몬을 감지할 수 있을까?

김창엽
자유기고가

다섯 살짜리 암컷 풍산개 '복순이'를 키우는 K씨는 가끔 애견 복순이가 징그럽게 느껴진다고 털어놓는다. 순둥이인 데다 다정다감하지만, 가랑이나 엉덩이 쪽으로 코를 들이밀 때면 불쾌한 기분을 떨쳐내기 힘들다. K씨가 비위 상하는 느낌을 갖는 건, 짝을 만나지 못한 복순이가 혹시라도 자신의 '남성 호르몬'을 감지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다. 동물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경우에도 '후각'이 일정 정도 성호르몬의 분비와 상관관계가 있다.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호르몬은 말할 것도 없고, 인간도 이성이나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어떤 신호를 보낼 수 있는 화학물질, 즉 페로몬을 분비한다. 다만 성호르몬 '냄새'나 페로몬은 동물들과 달리 일종의 흔적기관처럼 인간에게 주요 소통 수단은 아니다. 인간은 시각 등을 통한 정보 처리의 양이 월등하게 많기 때문이다.

일부 학자들은 페로몬이나 성호르몬은 일반적인 후각과 다른 메커니즘으로 그 '냄새'가 인식된다고 주장한다. 후각을 관장하는 뇌세포가 아닌 다른 뇌세포들이 간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 냄새와 성호르몬 냄새를 달리 인식한다는 확고한 실험적 증거가 제시된 적은 없다.

남녀의 성호르몬 분비는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일반적으로 여성의 후각이 남성보다 예민하게 작동하는 것만은 확실하다. 한 예로 브라질 등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후각세포는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거의 1.5배나 많다. 한데 같은 여성이라도 생리 주기, 즉 여성 호르몬 분비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후각의 예민도 차이는 패턴이 일정하지 않아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흥미로운 점은 여성이 남성보다 냄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 배경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다만 학자들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더 큰 구실을 하는 여성들이 냄새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추정하고 있다. 먹어도 될 음식, 먹지 않아야 할 음식을 구분하는 데 냄새 정보는 상당히 유용할 수밖에 없다. 또 임신한 여성들은 다른 감각은 몰라도 후각은 예민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이는 상한 음식이나 독성이 있는 음식 성분이 태아에게 전달되는 걸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라는 추론도 있다.

성호르몬 냄새나 페로몬 등은 이른바 '종 특이성'이 뚜렷한 물질이다. 종 특이성이란 해당 종끼리만 냄새나 페로몬이 일종의 신호로 받아들여진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수컷 꿀벌이 분비하는 페로몬은 꿀벌만 감지할 뿐 사람은 알아차릴 수 없다.

개는 인간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동물이다. 개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대표적 남성 호르몬으로 알려진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한다. 그렇다면 암캐는 인간 남자의 테스토스테론을 감지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뚜렷한 답을 내놓을 만한 실험이나 연구가 진행된 적은 없다. 그러니 K씨가 애견 복순이의 행동을 징그럽게 느끼는 것도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모른다. G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무의식적인 충동 '좀비 뇌'가 있었네



충동의 배후
데이비드 루이스 지음 | 전대호 옮김 | 세종연구원 | 336쪽 | 1만5000원

윤용근
위클리 공감 기자

1971년 12월 4일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신문기자 루이스는 폭탄 테러에서 간발의 차로 목숨을 구한다. 그는 인터뷰가 잡힌 어느 술집으로 향하던 중 알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영화관으로 간다. 영화가 끝나고 약속 장소로 발걸음을 옮기던 그는 그 술집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1987년 11월 18일 저녁 퇴근길, 피터는 평소와 같이 런던 킹스크로스 역에서 서클라인으로 갈아타려고 한다. 그러나 그는 갑자기 온 길을 되돌아가야 한다는 충동에 압도된다. 사람들의 짜증 섞인 항의를 받으며 허겁지겁 방금 전 지나온 승강장을 뚫고 가 막 출발하려던 열차에 올라탄다. 그가 탄 열차가 출발하고 몇 초 후 킹스크로스 역은 불길에 휩싸인다. 이들이 예정대로 움직였다면 틀림없이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과연 이들의 생명을 구한 충동은 왜, 그리고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

현대인은 대부분 자신이 의견을 내거나 결정을 내릴 때 합리적인 사고 과정에 따라 의사 결정이 이뤄진다고 믿는다. 하지만 '신경 마케팅의 아버지'로 불리는 저자 루이스 박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인간의 정신활동은 대부분 의식적 사고보다 더 깊은 곳에서 충동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 즉 무의식에서 움직이는 두뇌 작용을 '좀비 뇌'라고 부른다.

저자에 따르면 인간이 어떤 동작을 할 때, 그 동작을 하고 싶다는 욕구를 '의식'하기 전에 먼저 특정 동작을 촉발하는 뇌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특히 사춘기에는 신경생물학적, 행동과학적 변화가 진행되는 중대한 시기다. 이는 큰 위험 요인인 동시에 기회를 만든다. 10대의 뇌는 정신질환에 취약하다. 모든 정신질환의 약 4분의 3은 15세에서 25세 사이에 발병한다. 물론 진단은 훨씬 나중에 내려질 수 있다.

청소년의 충동성은 사춘기 이후 극적으로 증가하는 감각 추구와 20대 초·중반까지도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자제력 사이의 불균형에서 비롯된다. 인간의 사고체계는 숙고적 R(Reflection) 시스템과 충동적 I(Impulse) 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청소년기에는 이 두 시스템이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한다. 이 시기를 거치며 청소년을 성인기로 이끌 경로가 설정된다.

충동적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은 많다. 특히 후각, 청각, 온도가 대표적이다. 한 가족의 구성원들은 생김새뿐 아니라 냄새도 유사하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냄새 지문'을 가지고 있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땀 냄새다. 땀에 포함된 페로몬은 우리의 의식 낮은 층위에서 '유혹의 힘'을 발휘한다.

'자제력'이라는 정신 근육이 충동이라는 무질서를 잡는다. 자제력은 자기 감시, 스트레스 대처, 다양한 선택지 고려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자제력이 고갈되면 논리적 추론이나 지적 사고의 능력 저하를 부를 수 있다. 자제력은 또한 배고픔, 약물 중독, 외도 등 본능적 욕망 앞에서 무너지기 쉽다.

인간이 충동을 의식적으로 완전히 제어하기는 불가능하다. 우리 행동의 근원이 무엇인지 '좀비 뇌'를 다시 한 번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후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G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다시 노벨문학상을 기다리며

고승철
소설가

해마다 가을이 되면 고은 시인은 난감해진다. 노벨문학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자택에 기자들이 몰려와 인터뷰를 요청하기 때문이다. 벌써 10년 넘게 연례행사처럼 벌어지는 '해프닝'이다. 어느 해에는 대형 방송 중계차가 집 앞에 진을 치며 법석을 떨기도 했다. 여든이 넘은 노(老)시인은 방송 카메라 앞에서 민망해하는 표정을 지으며 "내년에는 제발 찾아오지 마시라"고 하소연했다.

언론에서는 '한국 문인은 언제 노벨문학상을 받나?'라는 상투적인 내용을 보도한다. 번역을 잘해야 한다는 둥, 그러려면 전문 번역인을 양성해야 한다는 둥, 영어뿐 아니라 프랑스어와 스페인어로도 번역해야 한다는 둥 대책이 제시되곤 한다.

프랑스어권에 한국 문학을 보급하는 일에 앞장선 위베르 니센 교수가 방한했을 때 필자는 한국 문인의 노벨문학상 수상 가능성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다. 그는 프랑스 악트 쉬드 출판사 사장을 겸임하며 고은, 이청준, 황석영, 이문열 등 한국 문인들의 작품을 프랑스어판으로 출판한 '지한파(知韓派)' 인사다. 자주 받은 질문이었는지 그는 망설임 없이 "해당 국가의 문학 열기가 중요한 요인이므로 한국에서 문학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져야 한다"고 대답했다.

니센 교수의 분석대로라면 한국 문인의 수상 가능성은 매우 낮다. 문학의 열기는커녕 '문학의 시대는 갔다'라는 담론이 공공연히 나돌 지경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서점에 가보라. 문학 매장이 점점 줄어든다. 한국 소설보다 일본 소설 코너가 더 넓은 서점도 적지 않다. 한국 소설가들은 맥을 못 춘다.

미국이나 유럽의 대형 서점에는 대체로 입구 부근의 가장 좋은 목에 '픽션' 코너가 있다. 고전, 신간, 공상과학(SF), 추리 등 장르별로 다양한 소설들을 비치해놓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공쿠르상, 르노도상 수상작은 여전히 주목의 대상이어서 지식인 모임에서는 이 책을 읽지 않고는 대화에 끼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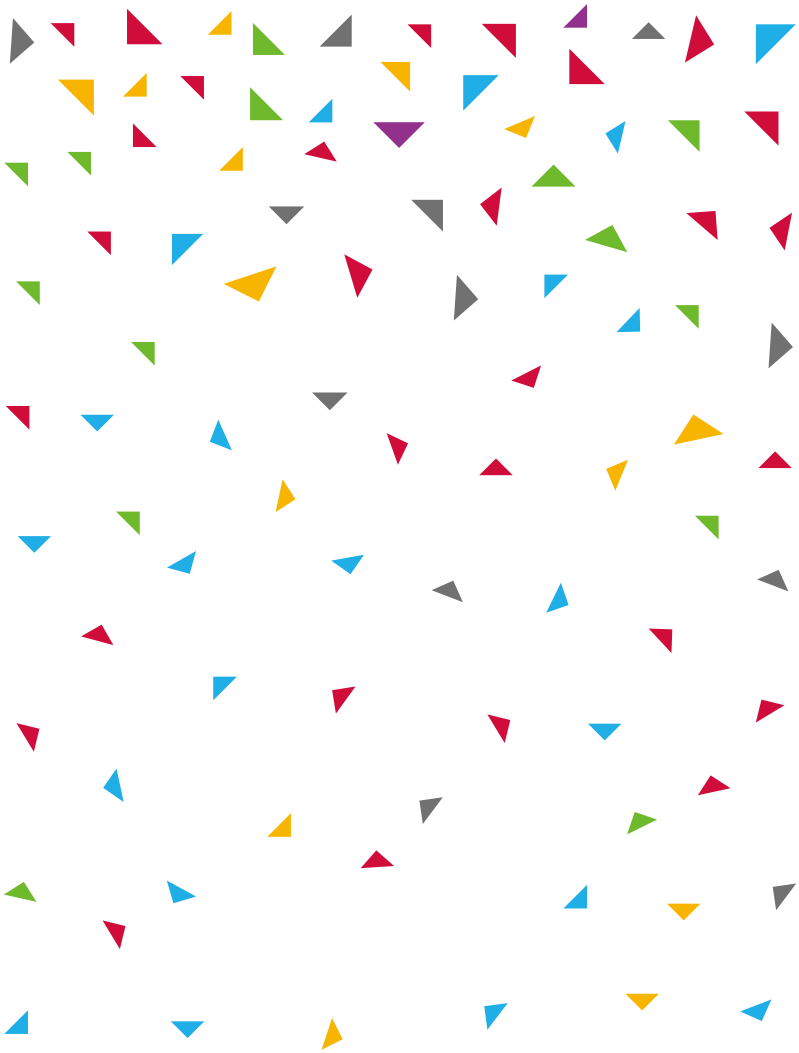
한국에서는 소설이 조롱당하고 있다. 엉뚱한 이야기를 해대는 상대에게 "지금 소설 쓰느냐?"라고 핀잔을 준다. 소설이 거짓말과 동의어로 쓰이는 것이다. 소설은 남을 속이는 엉터리 거짓말에 불과한가? 소설에 대한 학문적 정의는 '가공(架空)의 진실'이다. 지어낸 허구이긴 하지만 진실을 추구하는 스토리라는 것이다.

역사 연구나 언론 보도가 찾는 가치는 '사실'이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사실대로 기술하고 그 의미를 탐구하는 영역이다. 소설은 사실은 아니지만(실화를 바탕으로 해도 작가가 문학 속성에 맞게 변형 창작) 인간의 내면세계를 밝히면서 진실을 그린 작품이다. 이렇게 소설의 가치에 대한 기본 개념조차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에 노벨문학상이 주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은 과욕이 아닐까.

사회 지도층 인사가 한국 작가 작품을 거의 읽지 않고 문인이 변방 지식인으로 밀려난 '문학 황무지'에서 노벨상이라는 꽃은 언감생심 아니랴. 작가들도 독자와 소통하는 폭을 넓혀 동시대인의 고민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공감하는 작품을 써야 할 것이다.

노벨문학상은 세속적인 욕망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문화 수준의 상징이다. 그래서 한국 문인이 이 상을 받는 날을 애타게 기다린다. G

문화융성



한 달을 즐겁게 만드는 하루

문화가 있는 날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영화, 스포츠, 공연, 미술관, 박물관, 고궁 무료·할인 관람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검색창에서 문화가 있는 날 을 검색하세요!

문화융성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가 있는 날 안내 : 02-760-4790~1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을 향한 즐거운 변화

정부 3.0

우리 모두가 혜택받는 맞춤서비스, 정부3.0

국민이 중심이 되는 나라, 정부3.0을 통해 국민행복을 키워갑니다

생활을 편리하게	운전면허 간소화, 안심상속, 세금 간편신고 등
정부를 유능하게	고용복지 센터,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등
창 업 을 쉽 게	데이터활용 청년창업, 일자리 정보연계, 워크넷 등
국민에게 믿음을	국민생활 밀접정보 사전공개, 세계최초 원문공개 등

행정자치부 MINISTRY OF THE INTERIOR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